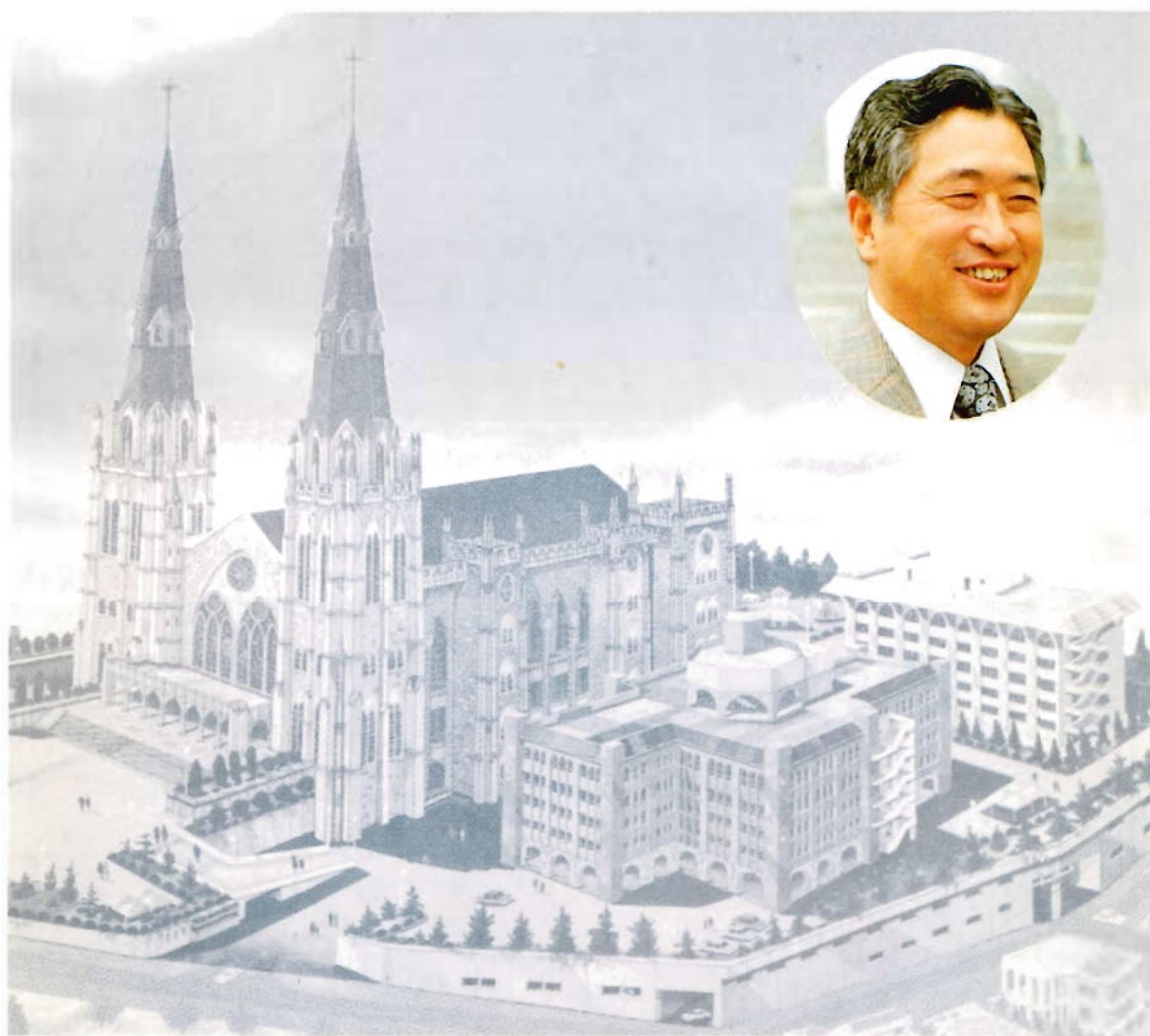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1.2 월호
198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마5:41)

미국 어느 주에 한인 의사 한 분이 백만장자가 되어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가 농장을 인수한 경위는 이러했다.

그가 세브란스병원에 수습의사로 있을 때 일인데 어느날 출근하다 보니 병원 마당에서 백발이 성성한 미국 노인 한 사람과 택시기사가 시비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 보았더니 노신사가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다가 부인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노신사는 호텔에 묵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부인에게 병문안을 가는데 그날도 부인을 면회하기 위해 병원으로 왔던 것이다.

노신사는 택시기사에게 20원을 더 주어야 할텐데 화폐 환율을 잘못 알고 2원을 주었다. 영어를 모르는 기사는 그만 돈을 땅에 던져버리면서 화를 내었고, 노신사는 노신사대로 화가 나서 다투고 있었다. 출근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걸로 지나갔으나, 어느 한 사람도 사연을 알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읍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그곳에 가서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자기 호주머니에서 20원을 꺼내 기사에게 주면서 “외국 손님에게는 친절히 대해 주어야 하지 않소?” 하고 그 노신사에게는 택시기사가 영어를 몰라서 실례를 했다면서 깍듯이 대신 사과를 드렸다. 몹시 불쾌하던 참에 젊은 의사가 와서 도와주니 고마워하면서 의사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갔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의사는 이 일을 잊어버렸다.

그 노신사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 백만장자로 그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의사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

젊은 의사가 의무를 초월하여 조그마한 일을 더 한 것이 농장을 인계받게 된 동기가 되었다.

미국의 대강철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자 전 세계의 눈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 회사의 중역들 중에는 두뇌가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카네기가 지명한 후계자는 쉬-브였기 때문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럴 것이 쉬-브는 국민학교 정도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쉬-브가 그 회사에 들어올 때는 정원 청소부였다. 청소부로 들어온 그는 정원만 쓸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그의 의무를 초월하여 공장 안까지 말끔히 청소를 했다. 이러기를 계속하자 웃음 사람들의 눈에 띄어 직공으로 채용되었다. 직공으로 채용된 뒤에도 언제나 의무를 초월하여 일하니까 사무원으로 발탁되었고, 사무원이 된 뒤에도 끊임없이 의무를 초월하여 일하므로 카네기의 눈에 띄게 되어 그의 비서가 되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쉬-브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다다녔다.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기 사무실 밖을 나섰면 그때까지 쉬-브는 기다리고 있다. 아무도 없는 줄만 알았던 카네기가 깜짝 놀라면서 “왜 퇴근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런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하는 것이 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카네기의 정원이 넓어서 카네기 집에서 회사까지 사실철도를 놓고 출근을 하였는데 카네기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그 자리에는 쉬-브가 메모지와 펜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의무를 초월한 성실성으로 인하여 쉬-브는 그가 연봉 2만 달러일 때 백만달러라는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고 끝내는 대강철회사 사장이 되었던 것이다.

카네기가 쉬-브에게 사장자리를 물려주면서 “자네의 정신적 바탕 위에 이 회사는 성장하리라 믿네.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는 학력이 문제가 아닐세. 요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일을 해결하는 정신적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자네에게 지식과 조언이 필요하면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진 자들을 채용하면 되니 그 참일랑 염려 말제나” 하였던 것이다.

주어진 의무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의 베풀은 넘치게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무를 초월한 봉사의 정신이 새해를 맞는 **총천교회에** **편만하면** 성전건축은 완공되고 더욱 성숙해지리라 믿는다.

五 大 目 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敎
民族福音化
世界宣敎
聖殿建築

1·2월호 차 례

권두언.....의무를 초월한 봉사.....	주 간... 2
이달의말씀.....새해의신앙생활.....	김창인... 4
당회장 86년도 목회방침...“충성으로 선한일에 앞장을”...당회장...	6

특별기획 새해는 이렇게 하겠다	9
-------------------------------	---

각 위원장의 새해포부

당회·이응선/구역권찰회·김원남/예배위원회·한영철
성가위원회·김창근/전도위원회·이세열/북한선교위원회·오진국
세계선교회·한경일/교육위원회·조영길/봉사위원회·박치민
건축위원회·임광식/재정위원회·최석주/충현동산·신현상
수양관관리위원회·정석태/출판국·조현명/감사위원회·김영개

평신도를위한신학강좌.....사도신경총론.....	임종만... 21
----------------------------	-----------

충현칼럼 골인 직전.....	조현명... 23
-----------------------------	-----------

추천도서/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군.....	신성종... 29
--------------------------	-----------

인터뷰/새로구성된 건축위원회 임원과.....	편집실... 28
--------------------------	-----------

독자투고/중공선교.....	안노수... 24
----------------	-----------

86년도 연간사업계획안내	편집실... 26
---------------------	-----------

신앙상담.....	김영구... 37
-----------	-----------

충현유치원소개.....	김정자... 30
--------------	-----------

성경학원안내.....	편집실... 35
-------------	-----------

교우동정.....	편집실... 41
-----------	-----------

충현신문.....	편집실... 38
-----------	-----------

교구분할도.....	구역권찰회... 45
------------	-------------

1986년 각위원회 임원명단.....	편집실... 32
----------------------	-----------

교회행사안내 / 편집후기	편집실... 50
---------------------	-----------

화보/충현교회당회원(장로).....	편집실... 43
---------------------	-----------

화보/충현교회 교역자.....	편집실... 46
------------------	-----------

화보/충현교회 안수집사.....	편집실... 48
-------------------	-----------

화보/교회행사.....	편집실... 51
--------------	-----------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4권제 1호
통권 제132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
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
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
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표지 사진 설명□

86년은 우리 충현교회가
새성전 완공의 의지를 갖
고 매진해야 하는 도약의
해이다.

이제 제3차 공사가 3월
중에 기공될 것이며, 전교
우들의 눈물어린 기도과
정성이 혼연일체가 되
어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
는 새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자.

새성전 조감도 앞에서
기도하시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새해의 신앙생활

김 창 인
(목사·당회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 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딤후 1 : 7)

집을 짓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짓기 전에 바른 설계를 그려야 건축하는데 능률이 오르고 자재의 소모가 적고 또한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잘 되어야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고 위생적으로 살게 됩니다. 간혹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설계가 필요한 것과 같이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설계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옳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나니, 성도의 마음가짐이 곧 신앙생활의 설계입니다.

그러면, 1986년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1.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딤후 1 : 7)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하고 환경은 복잡합니다. 우리의 앞날에는 위대한 일들이 거둬 거둬 닥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고 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한숨이나 쉬면서 날개죽지가 부러진 새처럼 기가 죽어 후퇴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은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탔

다니?’ 우리는 비록 예배당에 나와 앉았으나 사실은 한 시간에 4 천리 이상을 날아가는 지구라는 비행기를 탑니다. 하나님은 이 크고 무거운 지구덩어리를 쉬지 않고 날리시되 소리로 없이 기술된 냄새도 없이 똑같은 속도로 날리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새해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할 수 없다’ 하고 주저앉아 중단하거나 앞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할 수 없다’ 하고 돌아서서 좌악이 가득찬 애굽으로 갈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뒤에 무엇이 추적해 와도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1986년도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2.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딤후 1 : 7)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존경은 다릅니다. 거지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몸에 병든 환자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세력도 지식도 없어서 약하여 쓰러진 자들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충현교회 성도들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병신은 한분도 없고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절약하여 쓰지 않고 저축해 두었다가 환자와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존경받는 것은 귀하나 쓰러진 다음에 사랑받는 자는 불쌍합니다.

충현교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 건강, 지위, 지식을 가지고 써어질 육체의 향락을 위해 쓰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하여 바쳐서 남에게 혜택을 준 다음에 존경받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다 쓰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쓰고 싶은 것을 안 쓰고 절약해야 남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남에게 주는 법이 없고 도리어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청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백성에게 선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합시다.

남에게 주기를 원하는 자는 평생 주고 주어도 남고, 남에게 얻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리 얻어 써도 모자랍니다. 남에게 주기를 원하는 자는 평생 써도 남고 또한 하늘나라에 가서 더 좋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현교회의 성도들이여, 새해에는 사치품은 그만 사고 허리띠 졸라매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 조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기 원합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니』 (딤후 1 : 7)

물결치는 미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인생들이여, 조심이란 배에 자신의 몸을 실읍시다. 그리하여 침몰하지 않고 소망이란 포구에 닿아야 할 것입니다.

조심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기춧돌이니 조심의 기춧돌 위에 집을 지어야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심은 자신의 안전과 성공의 기초이며 생활에 운책을 주며, 조심은 자신의 인격을 고귀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조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조심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입혀 주는 자요, 조심하는 자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힘입니다.

충현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은 조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 첫째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 둘째로, 친구 사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 셋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4.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 1 : 8)

깨끗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희생적으로 많이 하면 나를 칭찬해 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까닭없이 모략을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는 약자가 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를 원망하지 맙시다. 선한 일하다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타협하지도 맙시다. 하나님만 믿고 고생 가운데서 선한 일을 계속합시다.

1986년도는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환경이 험하고 위태로워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담대하게 계속합시다.

사랑을 받으려고 거지노릇을 하지 말고 내 것을 절약하면서 사랑을 주는 금년이 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조심을 하고 친구 사귀에 조심하고 기회 놓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좋다는 의를 위하여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1년을 바로 살아서 금년 설날 그믐날 하나님 앞에 금년의 보고서를 내실 때에 무부익은 풍년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농부처럼 잘 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금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월 2일, 목사·장로 수련회에서 당회장 김 창인 목사님이 86년도 목회방침을 말씀하실 때에 안디옥교회를 살펴 보면서 증현교회가 목표하는 교회상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다. (편집자주)

“안디옥교회를 본받읍시다”

금년에는 안디옥교회를 살펴 보면서 증현교회가 목표하는 교회상을 말씀드리며 교훈을 받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침을 입은 천국시민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유기체입니다.

그러면, 증현교회는 어떤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아니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며 복의 기관이 되겠습니까? 저는 증현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안디옥 교회는 환란 중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행11:19-21)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사건을 시발로 하여 핍박이 일어나므로 신자들이 잡혀 죽거나 갇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신자들이 ‘도망은 이곳에서나마 목숨을 부지하려면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속으로만 믿자’ 하였거나 ‘예수 믿는 일을 그만 두어야지, 이러다가는 큰일나겠다’ 그랬어야 하겠으나 이들은 고향과 직장을 다버리고 도망은 처지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사람에게만 전도를 했으나,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의 헬라 사람에게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므로 점점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증현교회는 도망온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 안디옥교회와 비슷합니다.

2. 안디옥교회는 좋은 교역자가 계셨습니다

(1) 안디옥교회의 당회장은 바나바입니다

①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행11:24)

착하다는 말은 선한 일을 술선수범한다는 뜻입니다. 옷 사람을 섬기는 일, 아랫 사람을 키우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 믿는 자에게 전도하는 일,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일 등을 술선수범하는 자가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므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가 착한 사람입니다.

② 바나바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행11:24)』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결심이 굳어도 힘이 들면 꺾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꺾어지는 법이 없고 전진 뿐입니다.

③ 바나바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역자는 자기가 맡은 부서의 교인뿐만 아니라 인사하는 정도이면 안 되고 노인에게도 어린이에게도 폭넓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바나바는 노인은 노인대로 존경하고 지식인은 그 수준에 맞게 대우하고 미련한 사람은 너그럽게 길을 인도해 주면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좋은 교역자였습니다.

④ 바나바는 천국일군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행11:25-26)

바나바는 천국일군을 키우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므로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동역자(부교역자)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부교역자를 구하려고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모셔다가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 안디옥교회 부교역자는 사울입니다

① 부교역자 사울은 진리 편에 선 사람입니다

부교역자가 모를 때에는 고집을 부렸지만 일단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진리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② 부교역자 사울은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③ 부교역자 사울은 성령님의 권능을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취어도 환자가

치료를 받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당회장 바나바 목사님도 참 훌륭했으나 부교역자인 사울이 더욱 훌륭했습니다.

교역자가 훌륭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3. 안디옥교회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11:26)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안디옥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습니다.

신자에게 잘 믿는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안디옥교회 안에는 특별기도단이 있었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행13:1~3)

안디옥교회에는 특별기도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지위가 낮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식이 상당한 박사와 왕의 친척인 귀족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나이 많은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저 모퉁이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특수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런 특수한 운동을 교역자가

선두에 서서 잘 지도했습니다.

본문 1 절에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특수운동에 교역자가 지도자로 참가하였습니다. 특수운동은 교역자의 지도 아래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수운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교역자의 목회방침과는 거리가 먼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역자의 목회방침에 맞는 특수운동을 한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5. 안디옥교회는 구제사업을 잘한 교회입니다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행11:27-30)

안디옥교회는 구제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충현교회는 지금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만 앞으로 예배당을 빨리 짓고나면 성로원도 짓고 구제하는 일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6. 안디옥교회는 세계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행13:3)

한국 교회는 30여년 전에 선교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교회가 있었으나 지속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15년 전부터 다시 선교사업을 시작할 때에 충현교회가 앞장을 서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세계적으로 선교사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57,400명 정도가 선교사로 세계에 나갔는데, 그 중에 미국 선교사가 30,000명이 넘습니다. 60% 정도가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의 재산 절반 이상인 60%를

소유하고 삽니다.

선교사업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했고 또 이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미국이 경제면에서도 세계의 일등 부자이고 지식면에서 세계의 일등 선진국이고 무력으로도 당할 나라가 없는 큰 강대국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50만원짜리 옷을 해 입으려던 것을 절약해서 5만원짜리 옷을 해 입으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과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부자가 되는 복도 꼭 주십니다. 그러므로 충현교회는 선교사업을 하는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충현교회는(선교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선교하기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북한을 선교지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북녘땅에 있는 내 백성을 뜨거운 사랑으로 선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으로 저들을 점령하지 못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점령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현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교회는 환란 중에도 후퇴하지 않고 전도를 열심히 하므로 세워진 교회이고 훌륭한 교역자인 너그럽고 성령의 충만한 바나바가 당회장이 되고 더 좋은 부교역자를 키운 교회입니다. 충현교회에서 자라난 부교역자들이 김창인 목사보다 10배, 20배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되도록 천국열군을 키워야 합니다.

안디옥교회는 특별그룹이 있었습니다. 기도그룹과 선교그룹이 있었는데, 저들은 제 나름대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당회장 목사님의 방침을 따라서 활동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충현교회가 새해에는 5대 목표를 향하여 발걸음을 맞추어 전진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위원장들의 새해 포부

당 회

이 응 선
(장로 · 당회서기)

“은혜로운 당회로”

기록은 역사로 남는다.

은혜로운 당회의 결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손에게 복을 물려줄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충현교회 당회원으로서는 기름부어 새움을 입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충현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기록들을 남기는, 서로 협력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는, 성경적인 당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로서 천국일군양성, 민족복음화, 북한선교, 세계선교, 새성전건축 등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현교회를 가리켜 특색이 없다고 평하는 자가 있다. 세상적으로 추대받는 재벌도 권세 좋은자도 없고 학박사(學博士)도 적고 예술가도

적다. 그야말로 평범하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한 우리의 목표를 향해 착실이 전진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위치를 지켜 주님만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며 힘을 다하여 주안에 뭉쳐있다. 누구도 자기의 색깔을 강조하지 않고 또한 강요한다고 해서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특색이 없다는 말도 틀리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부족하다고들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부족을 믿음의 형제에게서 보충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는 확고한 신앙으로 충현을 일구고 있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님께서 홍수같이 쏟아지는 많은 성역을 감당하시기에 너무 피곤하시다. 우리는 기도드린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는데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출17:12)라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아론과 훌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충현교회하면 김창인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하면 충현교회가 뒤에 따라 붙는다. 당연한 일이다. 충현교회 시무 33년에 개인 재산으로 집한칸도 없으시다. 아무리 교회가 목사님을 대접한다 해도 사생활을 절약하셔서 교회에 헌금하신다. 건축헌금도 1위의 자리를 양보하시지 않으신다. 교회에 쏟으시는 사랑은 눈물겹다. 이분을 당회장님으로 모셨다. 충현교회 성도는 복을 받은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회가 너무 조용하다고, 그리고 활기가 없다고……. 그것이 사실일까?

밥을 지을때 끓는 소리는 요란스럽다. 그러나 밥이 다 되어서 뜸을 드릴 때는 조용해지고 밥은

그 맛을 더해준다.

당회가 교리문제 아닌 행정처리 방법을 가지고 밥술 꿀듯이 부글부글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 활기있고 민주적이며 성경적이라고 찬양받을 것인가?

부산으로 가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다. 비행기로 갈 수가 있고 기차 또는 버스편도 있다. 꼭 이 편만이 좋다고 고집하는 것은 밥이 다되지 못하고 요란스러운 잠음만 일으키는 미숙한 단계일 뿐이다.

당회장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당회에 제출한 의제는 당회원이 기쁨으로 결의하고 기록에 남기고 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편견을 갖는 졸속한 의제는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용한 당회요, 활기가 없어 보이나 은혜로운 당회인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온유하므로 징계하고 자신을 정결케하여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충현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당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구역권찰회

김 원 남
(목사 · 구역권찰회장)

“교회 부흥에 역점”

1986년도 구역권찰회 계획은 아직 새 성전이 완공되지 못해 교회부흥 저해요소를 안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미 새성전으로 이사온지 1년6개월이 지났으니 교회부흥을 새해 계획의 우선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첫일이 곧 교회 부흥이

다.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야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천국일꾼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성전건축의 5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부흥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겠는가?

1.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교회부흥을 가져온다. 교회부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는다. 아무리 교회가 무엇을 잘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생활이 올바르지 못할 때 교회부흥을 가져올 수 없고 수적인 부흥을 가져왔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새해는 구역의 모든 일꾼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① 공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② 구역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구역예배는 직접 새신자로 하여금 믿는자가 되게하는 지름길이다. 한국의 과거 교회역사를 더듬어 보면 구역에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여 교회에 나왔던 것이다. 새해에 구역예배는 예배인도자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한구역씩 맡아 주실 것이며 남여서리집사님들도 자원하는 자로 세워서 구역예배를 인도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구역예배 설교는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였다. ③ 그리고 가정예배를 각 가정마다 드리도록 권면할 것이다.

2. 복음전도를 통한 교회부흥

옛날 초대교회로 부터 한국교회 부흥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도이다. 피땀흘리는 전도자들의 노고는 대단했을 것이다. 구역권찰회에서는 전도를 하되 한집 한집 세밀하게 더듬어 복음을 전하는 축호전도 방법을 취하고 (심방전도 병행) 전교구원전도, 교구일꾼전도, 70인 전도대전도 및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도 활동에 적극적인 동원과 협력을 할것이다.

3. 본교회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부흥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서는 — 초대교회는 많은 사경회를 했다. 그런데, 근배에 와서는 ‘부흥회’, 또는 ‘대부흥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한다. 초대교회가 사경회,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집회를 하는 것으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것에 대해 현대교회들은 주목해야 한다.

권찰회에서는 ① 전 권찰회 산하 일꾼 성경공부 ② 전교인이 성경공부에 임하도록 권장하

여 전교인을 천국일꾼으로 양성했으면 한다.

4. 각 선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 부흥을 가져온다.

본교회에서는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 세가지 선교사업에 권찰회 산하 전일꾼이, 전교인이 ① 전도자가 되고 (민족복음화에) ② 회원으로 가입 ③ 집회에 참여하는 일을 적극 권장할 것이다.

예배위원회

한 영 철

(목사·예배위원장)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의 표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물며 모든 예배 드리는 태도와 정성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새해계획을 몇가지로 피력해 본다.

첫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사야서 40장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꽃은 임시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불변이요 불멸이니 이말씀을 온 성도는 붙들고 믿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둘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나라에 법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범하면 은혜도 축복도 믿음도 거두워 갈 것이 분명하니 말씀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굳게 믿음 붙들고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효자성도 효자가 정, 효자와 같은 교회, 효자와 같은 나라되며 책망 없이 칭찬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질 줄 안다.

세째,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 기도하느라 힘을 쏟았처럼 오늘까지 기도 많이 드린 교회이오니 금년은 더욱 많이 기도드리어 에스겔서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해가 되길 기원하겠다.

네째,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물을 드려 영광되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29장38~43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정성껏 드려 향기가 흠향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막에서 만나고 말하고 회막이 거룩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성껏 번제물같은 충성을 아끼지 말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기도가 상달되고 정성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자.

다섯째,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의 백성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매주일 많은 신자가 늘어 날뿐더러 전 교우 전도특공대가 되어 마귀의 포로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고 구원의 백성이 날마다 부흥되길 원한다.

여섯째, 찬송 많이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사야서 43장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3장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에베소서 5장19절 골로새서 3장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은 찬송 부르는데 인색하지 말고 있는 정성 다해 힘껏 마음껏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성도의 본분을 다 하기를 원한다.

일곱째, 집회마다 모이기를 힘쓰자.

구역 예배도 부지런히 모이고 새벽기도도 더 열심히 나와 하루의 일과의 장을 열기 바라며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6부 주일학교 교육에 참여도 어느 하나 소홀히 말고 밤집회도 교회가 확장되도록 모여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위로를 받아 큰 소망 가지고 힘있는 신앙생활의 기수들이 되어 큰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86년도에 더욱 돌리자.

결론

로마서 8 장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존 칼빈 선생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수고는 제가 하리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 장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성가위원회

김 창 근
(목사·성가위원장)

“찬송의 생활화 주력”

“성가대원의 영적성장과 실력향상에 힘쓸터”

I. 서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심, 공의로 우심을 힘차게 찬양함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따라서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일상 생활속에서부터 찬송하며 사는 찬송의 생활화운동을 전개하고 싶다. 또한가지는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위해 찬양대원의 수적인 증가, 질적성장과 아울러 말씀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무장하여 사명감에 불타는 찬양대로 양육코져 한다.

II. '86년도 찬양대 임명 현황

'85년에는 6개 성가대 385명이 임명되었으나 금년에는 7개 성가대 589명이 임명되어 전년에 비해 204명이 증가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하겠다. (2부성가대 신설, 125명 포함)

구분	대장	지휘	반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계
제1부	조인재	최광덕	신채우	25	21	19	20	88
제2부	노광현	박기범	조희영	57	27	20	18	125
제3부	김천재	이관섭	백금옥	33	30	16	18	100
제4부	홍중섭	최명용	김은백	36	25	12	17	93
제5부	박용삼	조인원	채은실	21	21	10	8	63
여성	정경자	최찬후	김윤경	23	13	매조	18	57
선교	이훈	김영준	김남옥	22	22	9	7	63
계	7	7	7	217	159	104	88	589

III. 성가위원회 운영의 중요 계획

1. 영적 성장을 위해 전격하고저 한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함과 아울러 믿음으로 영혼이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도록 지난해와 같이 매주일마다 각 성가대별로 성경공부를 계속하고 연초의 단기수련 부흥회와 여름 수양회(7월 17~19일 계획)를 통해 신앙훈련을 계속하고저 한다.

2. 실력있는 찬양대로 키우고저 한다.

수준 높은 찬양대로 성장하도록 지휘자를 중심으로 철저한 연습과 훈련에 힘쓰고 대장, 임원이하 전대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보다 좋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질적인 면에서 성장하는 한해 가 되도록 힘쓰려고 한다.

3. 관현악단 창단 준비

본교회 성도중에서 기악에 재능이 있는 일군을 찾아 본당 입당후 봉사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준비하려고 한다.

4. 음악예배 계획(연합성가대)

1) 부활절 음악예배 (3월 30일 저녁예배 지휘: 최광덕 선생)

2) 교회설립 33주년 기념음악예배 (9월 7일 저녁예배 지휘: 최명룡 선생)

3) 성탄축하 음악예배 (12월 14일 저녁 2부찬양대, 12월 21일 저녁예배 지휘: 조인원선생)

4) 성가위원회 헌신예배 (11월 30일 저녁예배 지휘: 이관섭 선생)

IV. 결언

금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더욱 발전하는 성가위원회가 되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온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가 되어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도위원회

이 세 열
(목사 · 전도위원장)

“부흥하는 교회로”

새해에 중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위원회 새해계획은 무엇보다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여인이”: 예수님을 뵈옵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예시야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들은 동네의 모든 주민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마리아여인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웃에 복음전도합니다. 이웃에게 “우리교회 나오세요. 우리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그리하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며 같이 신앙생활합시다.” 권면

하며 초청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이웃을 10가정 이상 전도하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이되면 “전도왕”의 상패를 타는 가정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교회란 전도하는 기관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로 전도하고 교역자는 교육을 통해 전도하고 심방권찰은 심방을 통해서 전도하고 전도위원은 전도를 통해서 개인전도와 축도전도와 구제사업과 봉사사업등 모든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새해야말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칭찬 듣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만 무성한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 무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됩시다.

북한선교위원회

오 진 국
(장로 · 북한선교위원장)

“지방조직 활성화”

지난 해 85년도는 국내외적으로 다사 다난했던 해였다. 무엇보다도 남북적십자 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었고 극히 제한적이나마 고향방문단이 구성되어 서울과 평양에서 각기 부모형제들을 40여년 만에 만나보는 매우 감격적이며 눈물겨운 일들도 일어났었다.

그 중에서도 9월 22일 평양에서 우리고향방문단이 드렸던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에 더욱 감사를 드리게 했던 일이었다.

특히 북한선교를 위해 여러모로 준비하며 기

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이나 그러했을 것이다.

북한선교 활동에 대하여 냉담하고 비판적이었던 일부 교계나 사회 일각에서도 무엇인가 북한 선교의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이다. 총련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북한선교원에 관하여 사회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보아도 잘 증명되는 일이다. (동아일보 85년 11월 9일자 10면 기사 참조). 그 동안 여러 회원들의 끊임없는 기도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북한선교원의 모든 행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금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북한선교를 위해 시대적으로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최선만 다할 것이다.

새해의 주요한 사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 전국 지방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 충남 연합집회(충남 서천), 전북 연합집회(전주시), 대구 연합집회(주암산 기도원), 경북 연합집회(구미시)를 가질 예정이며,

둘째, 목회자 경건 훈련 2회(6월, 9월), 목회 내조자 훈련 2회(5월, 9월)를 실시하여 지교회 부흥은 물론 민족복음화·북한선교의 역량을 키우며,

셋째, 군목 초청 간담회(4월), 군종 사병 훈련(11월), 군부대 집회(연중 12회)를 실시하여 군복음화에도 박차를 가하며,

네째로, 3·1절 구국성회와 8·15 구국성회를 개최하여 구국기도의 선봉적 역할을 감당하며

다섯째로 농어촌 지역 복음화를 위해 미자립 농어촌 교회 부흥회 인도 100회를 계획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찰 복음화를 위해 치안본부 경찰교회 및 전경대 예배 인도 12회 등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많은 새해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회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이 필요할 줄로 믿는다.

세계선교회

한 경 일
(장로·세계선교회장)

“선교재정의 효율화”

지난 한해동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기도와 헌금으로 힘써 충성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특히 선교회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선교 사업을 대과없이 감당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에도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힘쓰시다』(딤후 4:1~2)라는 총재 김창인 목사님의 지침을 받들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는 실천 목표를 정하고 몇가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 재정의 효율화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어 왔음이나 앞으로 선교지 사업비 지원에 있어 가능한 곳은 생활비부터 우선 자체 부담토록하여 점차적으로 재정자립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절감되는 사업비는 중점적으로 선교 활동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선교 활동비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협의하여 단위 사업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곳이나 어려운 곳은 계속 지원할 것임이나 이렇게 하여 정성과 뜨거운 헌신이 담긴 선교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후원하시는 성도들이나 이를 받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께서나 보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선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본부의 내실과 재정의 자립도 향상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재정을 교회의 보조를 받

아서 충당하여 왔으나 앞으로 선교회원의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후원 회원들을 발굴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오며 관심있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해외 지교회와 자립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협조를 받아 연약한 선교지를 후원케 함으로써 재정 절감을 기하고 함께 동역자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협력 선교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셋째, 구역권찰회, 교육위원회, 전도위원회 등 교회내 타기관들과의 유대와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각 선교지와 선교사업의 후원에 협조를 받고자 합니다. 간단한 생일 카드와 선물 및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하고 절기 때마다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모교회 성도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선교협력 교회, 단체 및 성도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48개 오지 개척교회, 애굽의 10개, 파라과이의 12개 등 개척 선교 교회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돕는 많은 성도들과의 따뜻한 교제는 더욱 선교 사업의 폭을 넓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축복해 주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조 영 길
(목사 · 교육위원장)

“교육커리큘럼 확정”

“천국일꾼양성”이라는 교회 전체 목표달성을 위하여 힘쓰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려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1. 표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성하자.”
2. 주제성구: 딤후 3: 14~17
3. 교육방침: 일곱 가지

(1) 16부 주일학교의 교과과정의 재조정 및 확정하는 일이다.

교회설립 33년째 되어가는 우리교회가 아직껏 교회학교의 커리큘럼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재조정 보완하여 우리 교회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확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2) 커리큘럼에 맞는 교육실시이다.

지금까지 16부 주일학교 교육이 우리 교회의 커리큘럼대로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마다 지도 교역자가 바뀌는 부서는 교육내용도 다소간 바뀌어왔다. 지도하는 교역자의 임의대로 교안을 만들어서 그때 그때 가르쳐 왔다. 이와같은 교육을 지도 교역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확정되어 있는 커리큘럼에 맞추어 단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3) 단계적으로 계단공과를 제작하는 일이다.

우리교회의 커리큘럼에 맞고 실정에 맞는 공과책을 단계적으로 저술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커리큘럼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면 1년에서 2년 혹은 3년만 지나면 16부 주일학교 전 부서에서 공과책의 자료가 나온다. 그것을 검토 보완하여 출판으로 넘기면 된다.

(4) 교사들의 자질향상이다.

금년 교사들이 모두 654명이다. 그중에 정교사가 493명이고 임시교사가 161명이다. 모두 다 정교사가 되게 교육훈련하는 일과 (교사양성부에 등록하여 교육받음) 모든 교사들의 상하반기의 단기수련회 및 여타의 교육훈련으로 교사들의 자질을 높여가는 일에 계속하여 힘을 쓴다.

(5) 질적,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다.

진정한 성장과 부흥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의 균형이다. 교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일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약한 대학부와 청년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힘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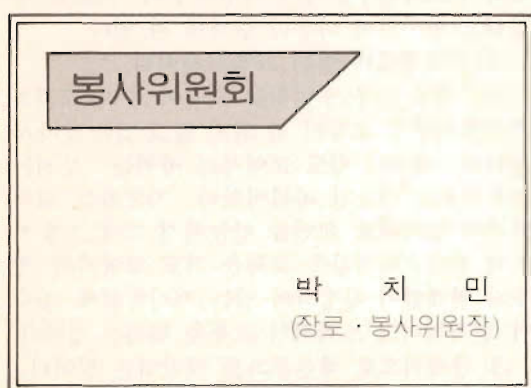
(6) 전체교인들이 주일학교에 등록하게 하는 일이다.

영아부에서 소망부(70세이상 되신 분들) 까지

16부 주일학교가 있으니 해당이 없는 교우들은 하나도 없다. 홍보하고 권유하여 전체 교우의 주일학교 학생화에 노력하겠다.

(7)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어 봉사하는 천국일꾼들이 되게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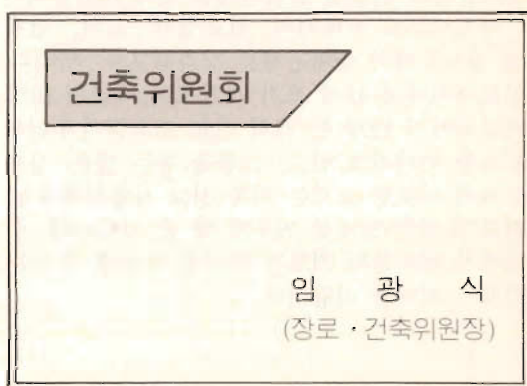
교육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배워서 실천하게 하고 그것도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고 교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고 헌신토록 하며 충성토록 하는 것이다.



니다.

1. 오늘까지 하여오던 모든 활동을 계속합니다.
2. 봄, 가을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3. 충현 제1, 제2 동산 청소와 미화작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4. 충현 제1, 제2 동산의 나무를 관리 하려고 합니다.
5. 상을 당한 가정을 봉사지역으로 삼고 새로운 충현의 사랑의 실천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타 필요하고도 적절한 활동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노력의 헌신”

지면을 통하여 지난 85년도에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신자로서의 기본사명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오직 남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맘을 흘려 노력하며 일하는 봉사위원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동반되는 활동으로 전개하고 아울러 자기를 희생하면서 즐거움을 맛보며 기쁨이 충만한 봉사자세를 갖출 것입니다.

우리 봉사위원회는 올해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같이 봉사활동에 동참할 형제자매를 기다립니다.

특히 금년 저희들의 활동은 커다란 일, 명분이 뚜렷한 일보다 아주 작은 일로부터 뿌리를 박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노력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것도 사양치 아니하려고 합

“3 차공사에 최선을”

충현교회 새성전건축의 최종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온교회가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이때 뜻밖에 3차공사 책임을 맡고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날 신병과 싸우며 육신의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더우기 건축에는 아무 경험이 없고 입술마져 둔한 저로서는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간 1, 2차공사의 대역사를 추진토록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건축위원들의 노고, 특별히 온성도님들의 피땀어린 헌금과 눈물의 기도를 생각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 온 교우와 함께 기도하며 새해 구상을 조심스럽게 펼쳐 봅니다.

첫째, 건축위원회는 보다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4개분과 25명(장로 14, 권사 3, 집사 8)으로 조직, 매월 2회이상 정기 집회를 가지며 건축을 추진하려 합니다.

둘째로, 건축설계는 이미 작성된 도면을 재검토, 수정 또는 보완작업을 2월 중으로 마치고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셋째로 공사내역은 외부 돌붙임(화강석)공사, 내장공사(음향, 조명포함), 종탑공사(동판 처리) 그리고 조경 및 기타 부대공사가 있으며 종탑은 금년내에 완성하며, 돌 붙임공사는 전면부터 시작하여 50% 준공을 목표하고 내장은 86년 성탄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 문제는 매월 건축헌금 연간 12억을 비롯 전년이월, 일반회계 절약이관 등 총 25억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86년 한해동안 중요공사를 완료하고 87년에는 조경까지 포함 성전건축의 전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정위원회

최 석 주
(장로·재정위원장)

“3 차성전공사에 주력”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교회 성도들의 정성과 눈물겨운 헌금에 의하여 85년도 재정은 예산보다 104%나 수입이 되고 쓸

돈은 아끼고 줄여서 82%만 지출했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을 잘 넘길 수 있었고 더우기 어려웠던 건축부의 막대한 부채도 구성전대지가 순조롭게 매도됨으로 시공한 건축업체에 공사금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하신 축복의 전적인 은혜였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재정위원회는 일반경상예산에서 약27%를 건축예산에 비중을 두어 86년도에는 3 차공사비에 약27%드리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고 건축부예산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공사비만을 세웠습니다. 가벼워진 우리에게 힘을 주어 86년의 정성과 기도를 함께 모아봅시다.

아끼고 모읍시다. 허리끈을 졸라맵시다.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보십시오. 건축은 이제부터 힘이드는 공사이고 정성을 드려야만 될 일입니다.

좋은 설계와 좋은 업체와 좋은 자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기에 뒷받침해야 할 재정은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높이 종탑이 세워지는 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성도들은 감사와 감격스런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사회와 불신자에게 구원의 등대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수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총현동산관리위원회

신 현 상
(장로·동산관리위원장)

“묘지잔디 정비에 박차”

본 동산은 재단법인 충현동산으로 충현교회 성도들 가운데 별세하신 분의 유해를 모시는 공원묘지로 주님재림의 그날까지 잠자는 안식처입니다.

동산의 시작은 1976년 9월 21일부터 1977년 6월 30일(훼손허가) 묘지 총평수 34,800평중 묘지조성 6,095평으로 비롯된다.

1985년 12월 20일 현재 약5,000평(433기)을 사용하고 1,000평 정도의 여유밖에 없으므로 실로 묘지조성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1985년 12월 16일 제2차 묘지조성허가를 받은바 있거니와 올 3, 4월에 5,070평을 공사키로 계획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로님들의 수고는 헤아릴 수 없지만 동산설치에 큰 역할을 담당하신 한명옥장로님과 김천준장로님, 윤두한 장로님, 특별히 이창업장로님은 천만원을 동산에 헌금하여 도로포장, 공사에 기여한 공로는 오늘날 산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장례식과 성도의 교제

발인예배 시간을 10시로 정하고 많은 구역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가 있으시기를 청언하는 바이다.

사랑없는 교회라고 말든지 않기 위함도 되고 전도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양적부흥과 발전이 질적 향상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산(세입·세출)

① 세입의 기본은 부담금(분묘)으로 86년도부터는 1기당 30만원으로 인상됨은 불가피한 이유로 묘지조성의 사업비로 1천7백만원에 달하는 그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후원비에 대하여 본동산에 묘기를 가지고 계시는 회원, 성도님들께서는 연 2만원씩을 후원회비로 납부하시는 일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줄 믿고 부탁드립니다.

③ 세출 : 세출의 대부분은 일반관리비와 묘지관리비로 지출되는데 도로보수의 시행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인건비(급여·노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

연중행사와 사업

① 춘계행사

3, 4월로 묘지잔디정비, 묘목식수, 도로보수로 1년 예산의 반액을 소요하게 된다.

② 추석성묘

동산의 합동예배 성묘객은 약650명 정도로 버스 6대로 3번 왕복해야 하는 혼잡을 이루지만

끝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수양관 관리위원회

정 석 태

(장로·수양관관리위원장)

“수양의 전당 육성”

우리 충현교회와 전국 모든 교회의 각 기관과 개인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심신을 수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기 원합니다. 본 기도원은 1978년에 개관후 연중 4계절 많은 기관과 개인 성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개인의 기도와 또 산상집회, 기관의 수련장 등으로 제공하여 오던바 지난 1985년부터는 명칭을 수양관으로 개칭하고 최고, 최선의 시설로 보완하기위하여 지난 가을, 일대보수공사를 실시하여 4계절(동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 남여 숙소를 중앙난방식으로 개수, 아늑하고 따뜻한 온돌, 온수난방에 온돌 소집회실 등 타 기도원, 타 수양관에서 볼 수 없는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본 교회의 각 기관과 성도 및 전국교회, 기관, 성도들의 아낌없는 은혜의 산장으로 기도와 수련장으로 면모를 일신하였으므로 많이 이용하여 은혜받고 하나님앞에 영광 돌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위원회

김 영 개
(장로 · 감사위원장)

“정확하고 절약을”

하나님께서서는 저희들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시려고 86년 또 한해의 생명을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86년 한해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 모든 헌금과 모든 회비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여지는 성금(聖金)입니다. 따라서 이 성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금을 관리하는 회계의 직무는 교회안의 중책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금년은 성전건축 제3차공사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따라서 회계는 정신을 차리고 정성과 지혜를 다하여 단 1원도 틀림없이 또한 단 1원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성있게 맡은 바 직무수행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금을 직접 쓰시는 분들은 물품을 구입하실 때 시중시세를 잘 알아보고 꼭 필요한 수량만 최저가격으로 사주시고 꼭 업자영수증을 받아 최단시일내에 회계에게 제출하여 회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회계감사는 2월 중에 제1차 5월 중에 제2차 9월중에 제3차 12월중에 제4차로 4번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내용은 첫째 예산대로 쓰여졌는가 둘째, 사용목적이 정당한가. 셋째, 업자영수증이 있는가 넷째, 구입가격과 시중시세와의 비교, 이 네가지의 중점을 두고져 합니다.

충현의 모든 회계를 맡으신 분과 온 교우님들께서 기도하시고 협력하여 주시어서 금년은 정확하고 절약하는 회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충현의 온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신령한 복과 아울러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아 선한사업에 마음껏 바칠 수 있는 86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판국

조 현 명
(장로 · 출판국장)

“값진 설교집 출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각자 자기의 맡은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정성을 기울임으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새성전 건축이 「골인 직전」에 도달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교회적으로 합심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전진하여야 하겠다.

출판국의 새해 구상과 계획도 교회의 지상목표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겠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참 사는 도리를 전하며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맡은 출판국의 책임이 중대하며 이에 비례하는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1978년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서 김창인 목사 저작전집 간행의 출발로 시작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의 설교집이 간행된 후 여러 책자가 발간되었으나, 도서출판 등록 후 '86년도에는 보다 더 충실하고 값진 설교집 및 강해집을 발간코자 다음과 같이 출판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절기설교집
2. 야고보서 강해집
3. 마태복음 강해집(1)
4. 마태복음 강해집(2)
5. 말씀씨리즈 5권

6. 일반 설교집

※ '86년도 출판원고 정리 계획

- ① 이사가 원고정리
- ③ 대살로니가 전서 강해집
- ③ 빌립보서 강해집

그리고 「선교란 무엇인가」가 2월 중 발간되며 「예식 설교집」도 발간 준비중에 있다. 「월간충현」은 금년 중 격월 발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86년도는 '87년도에 발간될 「충현 30년사」편찬과 10여년간 시도해 온 「문서관리관계 규정」의 제정을 위한 「준비의 해」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당회 서기가 관장하는 부서에서 맡으면 좋겠다. '87년은 '88년을 앞둔 해로서 특별히 의미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과거 5년마다 발간하는 교회사 편찬을 손쉽게 해 보려고 연보(年報) 발간을 제안해 보았으나 인원보충 문제로 실천을 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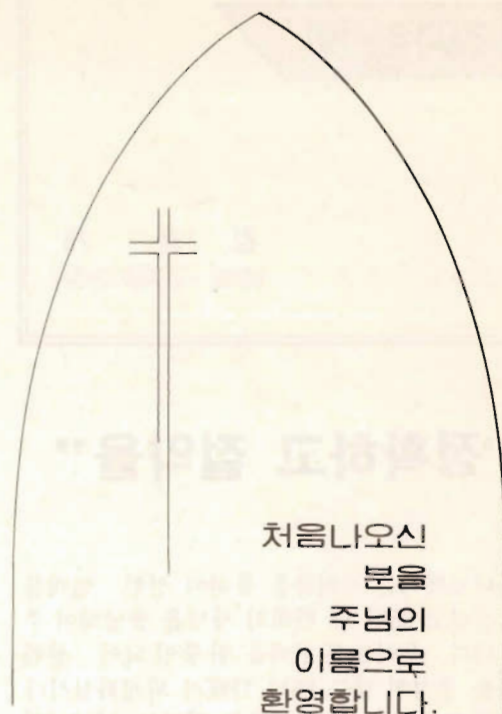
문서관리관계 규정 중 공문서 처리관계 규정과 공문서보관 보존관계 규정도 정해야 할 것이다. 영구보존 문서의 마이크로 필름 촬영 보관 등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각 부서의 협조와 감당할 수 있는 인재보충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출판국 안내 ■■■■

'86년도부터는 「월간충현」의 출판을 출판국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월간충현의 목적」이 「개혁신앙의 전파」 「말씀의 생활화」 그리고 「성도의 교제」이니만큼 여러성도들의 시, 수필, 포트, 일기 그리고 미담가화와 아울러 간증문과 성구수상문 등의 투고가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역권찰회 산하의 각 교구 구역장 및 권찰들의 활동과 알리고 싶은 소식등에 대한 투고와 전도위원회의 남·녀 전도회와 각 부서 및 교육위원회 산하의 각 부서에서 교사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외에 각 기관 및 각 부서에서 전교인들에게 홍보하기 원하는 내용 및 투고를 수시로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부는

- 처음 믿으시는 분(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주 유익하고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부득이한 시간 사정으로 새신자부에 참석치 못하는 분은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교육시간은 매주일 3부(10시30분) 예배후(11시50분)에 본당 103호실에서 6개월간 격으로 공부합니다.
-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 저희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그럼 주일에 새 신자부에서 만나 뵈게 될 것을 바랍니다.

충현교회 새신자부

사도신경총론

임종만

(목사·북서울교회 시무)

1. 사도신경 연구는 왜 필요한가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전도내용을 뽑아엮은 신앙고백문이다.

사도신경을 성경과 대조해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진리를 뽑아 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연구는 바로 성경의 진리 탐구와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교인 중에는 사도신경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하여 배척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사도신경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하여 배척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신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도신경은 성경 중에 있는 중요한 교리만 뽑아 엮은 신앙고백문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배척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배척하는 것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1949년 11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스위스의 신신학자 에밀·부른너 박사와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 교장 마카이 박사 두 분이 서울에 와서 집회를 가졌을 때 환영받은 일이 있었다. 물론 한

국교회 전부는 아니었다.

그 때 부른너박사가 공개한 말 중에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정통파에서는 성경을 우상화한다. 나는 사도신경이나 어느 신조도 순종하질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나는 순종치 않으려고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가졌던 견해이다. 문자적영감은 비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청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 얼마나 망녕된 발언인가!

나는 단언한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믿질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인 것이다. 또 성경의 중심교리를 뽑아 엮은 사도신경을 믿질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공공연한 거짓말인 것이다.

이상의 말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성경과 사도신경을 배척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의 구주로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교리를 뽑아 엮은 사도신경을 진리의 신조로 확신하고 힘과 마음을 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사도신경을 쓴 이들은 누구인가

어느 때 어떤 사람들이 썼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본 결과 사도들이 별세한 후에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서 사도들의 믿은 바 전도내용을 뽑아 신조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

밀란 지방의 감독이었던 암부로스가 이것을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하였으나 신교의 학자들은 암부로스의 말을 해석적으로 읽는다. 곧 암부로스의 말은 사도신경에 사도들의 교훈이 들어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박윤선 자음 교리사 p. 21 참조)

로마교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런 말이 4세기말 내지 5세기초의 글 중에 나타났고 중세기초에 이르러서는 오순절때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한 귀절씩 기록했다고 하는 말까지 했다. (송낙원 저 기독교회사 p. 89 참조)

그러나 이 말의 부당함을 몇가지 지적할 수 있으니

1. 성경에 오순절때 성령받은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한 귀절씩 기입했다는 것은 그림자 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2. 비역사적이라는 점이다. 4세기말로 5세기초의 글이 있었고 중세기초에 그러한 말이 있었다고 하나 1세기로 3세기말의 글에는 없는 것을 보니 비역사적이다. 그러니 15세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믿어 왔지마는 그 후부터는 이런 말은 비역사적인 전설이라하여 버리고 말았다.

3. 역사적으로 보아서 신앙고백문의 보충이 있었다는 점이다.

1) 신조가 있었던 것을 증거할만한 가장 오래된 문서는 이레네오와 터툴리안의 글 중에도 나타나고 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체의 부활을 믿노라」고 되어 있다. (사도신경강해 M. R. 아베이저 p. 8 참조)

이렇게 처음의 것은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 보

다 단순하지마는 아무튼 150년에서 175년 어간에 로마교회에 이런 신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송낙원 저 기독교회사 p. 89 참조)

2) 이런 것이 2세기 중엽에 와서 신자의 생활과 그리스도교 단체에 관련되는 다른 중요한 신앙문제를 보충하여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해 주심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형태가 변했다. (M. R. 아베이저 사도신경강해 p. 8 참조)

3) 400년 경에 쓴 루피노의 글 가운데 그 전문이 기재되었다.

4)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의 형태는 16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나 로마교의 말대로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귀절씩 기록했다면 이렇게 보충하지를 았았을 것이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신앙고백문의 형태가 변해가다가 16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오늘날 같은 사도신경이 된 것을 보니 사도들의 기록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다.

4. 만일 사도들의 기록이라면 신약성경이 28권이 될뿐 하였다.

신약 27권은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가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다 (계 22: 18~19).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도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았으며 절대로 가감할 수 없음을 의심없이 믿었고 자기들의 쓴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저작자는 사도들이 별세한 후에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을 살펴 신조로 정한 것이지 결코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니다.



골인 직전

조 현 명

(장로 · 출판국장)

40년 만에 밟은 이산가족의 고향 평양 땅 북 한 건문담에 의하면 평양역의 위치는 옛날의 그곳이었으나 넓게 확장되었고 평양역에서 서북 방향으로 벗어난 새로 난 도로 「창광 거리」를 따라 약 400m 위치에 자리잡은 고려호텔 높은 방에서 시내를 내려다보아도 호텔 주위에 둘러싸인 아파트에 가려져서 앞을 널리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겨우 동쪽으로 보이는 대동강, 양각도, 문수리, 대동교의 꼬리 부분, 북쪽의 능라도와 모란봉 일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옛날 평양 유일의 화신백화점은 그 이름도 제1 백화점으로 바뀌었고 건물도 개축되었고, 옛날의 교회, 학교, 도서관 등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번 40년 만에 만난 혈육들이 흘린 눈물은 1 천만 이산가족의 눈물이요 온겨레의 눈물이요 뼈아픔이 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 자라난 금수강산이 그리워져 돌아가신 장모님이 친필로 적으신 15절로 된 「평양가」를 정리하면서 중학교 졸업기념 사진첩을 펴고보니 옛날 내 고향이 머리에 자세히 재현되었고 참으로 평양 8경은 자랑할 만한 금상첨화의 금수강산으로 느껴졌다.

벌써 반세기 이전의 일이다. 중학교 2학년 때 10월 10일 개교 기념일 체육대회에서 마라톤 경주에 출전하여 칭찬을 받은 바 있었다. 나이 어리고 경험이 없었으나 「하면 된다」는 신념, 믿음을 가지고 교내 운동장을 출발하여 평양신학교 앞을 지나 서문외교회, 광성고보, 평양 1 중, 일본군 77연대를 지나…… 반환점 평양역을 돌아 유난히 내려쬰이는 숨막히는 더위를 참

으며 일본인 거리 신시가를 지나 화신백화점 앞에서 서문동으로 들어서면서 기력을 다해 달리는 순회 코스였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서 「골인 직전」 사력을 다해 뛰었다.

마라톤은 인내 · 지구력 · 극기심을 발휘하는 경기이므로 모든 경기 중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우리 충현교회의 5 대목표는 한 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다. 새성전으로 이사하기 전 건축의 진행상태를 보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외친 바 있었다. 지금 새성전 건축은 골인 직전에 도달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은 문제 속에서 기적을 낳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셔도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달리는 선수들이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므로 희망을 굳게 가지고 상을 얻기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 북녘 땅에 뿌린 복음의 씨를 싹트게 하고, 고지(故地) 평양 모교에서도 성대한 부흥집회와 옛 코스의 마라톤 대회가 온 겨레의 축복 속에 베풀 어지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중 공 선 교 <2>



안 노 수

<집사 · 9교구 구의3구역>

대리점 사람의 말이 이곳에서 만리장성 관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원전체가 2개조로 편성되어 하루는 1조가 그 이튿날은 2조가 관광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내가 1조에 편성되어 먼저 만리장성 관광길에 올랐습니다. 가는동안 길과 집들과 시가지들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혼자서라도 진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두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이튿날은 최 강산 집사님께서 관광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에 알아두었던 상점을 찾았습니다. 상점은 한산 했습니다. 신발 몇 켤레, 노트 연필, 메주, 쌀, 소금, 과자, 빵 등 일상용품들이 지저분하고 빈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반가와 했습니다. 전날 왔었기 때문에 이미 구면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 과자를 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필답이 시작되었고 「耶穌」를 써 보았습니다.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天神」을 써 보았더니 천주교 식의 성호를 그으며 이거냐고 물었습니다. 맞는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 도중 동리 아주머니들이 하나 둘씩 몰

려왔고 마침 그집 큰 딸이 왔습니다. 큰 딸이 와서 더욱 구체적인 필답으로 통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림을 그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 이십일장에 있는 열 두 대문과 문이 여러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성의 길은 유리로 되어있고 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는 매우 좋은 것으로 그려보였으며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탄다고 설명하면서 죽어서는 두 길이 있는데 어느길로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끼로 이야기 하던 것이 심각한 표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겠느냐고 물었더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때 70세 가량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담배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술과담배를 금해야 된다는 것을 전날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주머니들과 대화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끼리 무엇이래 이야기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께 담배를 끄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지면서 담배를 한번 쳐다보고 나를 한번 쳐다보고 주인 아주머니를 쳐다 보았습니다.

다 타들어가는 담배를 아까운 듯이 쳐다보면서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타다 남은 담배 궂초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발로 비볐습니다. 노인은 다 꺼진 궂초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나는 순간 할아버지께 믿으시겠느냐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내 주위를 쪽 둘러 쌓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부귀와 다남, 그리고 장수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더니 주인 아주머니와 자기는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다남이냐고 물어왔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믿으면 자손들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급료에 관심이 컸습니다.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왔습니다. 중공 화폐가 미화 1 달러 대 40이었기 때문에 중공화폐로 환산해서 육천 원이라고 소개 했더니 정말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보통 노동자의 한달 월급은 오십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우리나라 남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남조선”이라고 하기에 다시 고쳐 주면서 한국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녁에 귀선해서 최 집사님과 만나 오늘 낮에 이루어진 일을 나누고 저녁때는 찬송가를 들고, 둘이서 같이 가서 찬송을 불러 주었습니다. 뜻을 모르니 중국어로 불러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했고 답답했지만 그대로 열심히 불렀습니다. 성황을 이루었고 근무시간에 되어 귀선 했습니다.

사월 삼십일 진항파오로 배를 옮겼습니다. 산해관은 아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진항파오에서 씨멘스 클럽을 찾았을 때 그 곳의 안내인인 육십대의 할아버지가 유창한 영어와 일어를 구사했습니다. 기회는 왔다 싶어 안내인에게 접근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도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를 앞세우고 우리 동양을 침범해 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서양 문물을 앞세웠는데 그것이 전부 기독교 문화란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복자가 들어가기 전에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논리 정연하게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양을 강점했고 세계대전이 식민지 쟁탈전이며 일 이 양자 세계대전 전에는 언제나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서양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종교를 이용하여 통치수단으로 사용한 것 뿐이지 진실한 기독교의 신앙교리와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와 사랑을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완강한 반대 의사를 역사성에서 찾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진항파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월 육일 출항하여 일본 나고야로 향했습니다.

중국사람 전체를 놓고 볼 때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속히 받아들였지만 지식계급이나 관료들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었지만 조직이 없어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는 농부가 뿌리고 씨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란 생각에서 일탈의 위안에 되었습니다. 또 다시 중공 선교를 기대하면서 팔십 오년 음월 십육일 시드니 가나안 한인장로교회에 시무하시는 김 태현 목사님을 찾아서 선교지, 성경 등을 구했으며 동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팔십 오년 구월 이십 구일 일본 홋사복음교회(김 소익 목사님 시무)에서도 중공선교에 대한 간증을 하게되어 중공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은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중공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찾아야 할 최대의 황금어장이라 생각되어지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어 붙었던 북녘땅에도 복음으로 녹는 날이 곧 올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예

기관	교 회 행 사	담 회	제 직 회	구 역 권 찰 회	예 배 위 원 회	성 가 위 원 회	전 도 위 원 회	북 한 선교 위원 회	출판
1	5-11	공동의회 · 신년예배 부흥사경회	공동의회	장기제직회		부흥회 (6-10)	남 · 여임원단교육 (6)	송구영신성회 (12/30-3)	선교
	12-18	십일조 작성	헌금작성	노인심방 (14-)	세례식 17				
	19-25	성례식 · 할렐루야 (격월)			성례식 19		주교교역자 · 부장단 간담회 21	평신도지도자훈련 (20-24)	
	26-1	신교주일 행사	장기당회 11		제직 · 권찰원신예배		권찰회교역자지역장 간담회 26		선교
2	2-8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충남연합집회 (2-7)	
	9-15						상설노방전도인훈련 13		선교
	16-22	장학금 수여		구역일군교육 21			학원전도세미나 25		
	23-1		장기당회 28				남 · 여회장단간담회 24	3·1 장구국상회 (24-3/1)	
3	2-8	전교인성경공부개강 3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70 전도요원훈련 (7기)		
	9-15	대심방 시작 (11-)		대심방 (11-)					선교
	16-22				세례식 21				
	23-29	성례식 · 고난주간 부흥회 (24-28)		교구교역자교육 (24-28)	성례식 · 남 · 여전도회원		농 · 어촌교역자초청		
4	30-5	부활절 (음악) 예배	장기당회 (4/4)		신예배 · 부흥회 (24-28)	부활절음악예배	간담회 (26-27)	시찰훈련 (31-4/4)	
	6-12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13-19			교구별전도 11			70 동기생전도 17		선교
	20-26	총동원주일 교구의회예배 (21-)		교구의회예배 21			남 · 전신앙강화		
5	27-3		장기당회 (5/2)	전반기지역모임				전북연합집회 (28-5/2)	
	4-10	어린이주일 · 경모회 10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70 전도요원훈련 (8기)	어린이 (5) 노인 (8) 초창전도	
	11-17	어머님 주일		구역일군교육 16			신문배달원전도집회 16	임원단학대회 11	선교
	18-24							목회내조자훈련 (19-24)	
6	25-31		장기당회 30		주일학교원신예배				
	1-7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목회자훈련 (2-7)	
	8-14								선교
	15-21			교구별전도 20			병원전도세미나 19		
7	22-28			구역장 · 권찰수가임명	세례식 21				
	29-5	성례식 25	장기당회 (7/4)		성례식				
	6-12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여 · 전수련회 (8-10)	지도자훈련 (7-11)	
	13-19					장가대수련회 (17-19)			선교
8	20-26	백주감사절						평신도훈련 (21-25)	
	27-2		장기당회 (8/1)		복 · 신 헌신예배		농어촌전도대과송 (28-8/1)	대구역연합집회 (28-8/1)	
	3-9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청년수련회 (4-8)	
	10-16						남 · 전수양회 (14-15)	8·15 구국성회 (11-15)	선교
9	17-23	장학금수여					의료전도단과송 (15-16)		
	24-30								
	31-6	전교인 성경공부개강 1	장기당회 (9/5)				70 전도요원훈련 (9기)	목회내조자훈련 (9/1-5)	
	7-13	교회설립 33주년기념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실립기념음악예배			
10	14-20	대심방 (16-)		대심방 (16-)					선교
	21-27			신임임직자후보 및 특별회의 (중순)	새제전교원신예배		연합전도 21	목회자훈련 (22-26)	
	28-4		장기당회 10/3					전국세속대회 (10/3)	세계
	5-11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세례식 10		여 · 전신앙강화 (7-8)	유실수관리훈련 (9)	
11	12-18	성례식		교구일군전도 17	성례식				선교
	19-25								
	26-1		장기당회 31	구역일군교육 · 지역모임			직장전도세미나 26		
	2-8		장기제직회	모범구역 (원) 표창			모범전도인간담회 2	경북연합집회 (3-7)	
12	9-15			교역자교육 (10-15)					선교
	16-22	추수감사절		교구분할 · 배정			각지화송회 16		
	23-29			구역배정 1					장기
	30-6	제직임명	장기당회 (12/5) 제직임명	구역배정 2	상가대원신예배				
12	7-13	권찰임명	권찰임명	장기제직회				지도자훈련 (8-12)	
	14-20	교사임명	교사임명						선교
	21-27	상가대임명 · 성탄예배	상가대임명	특별제직회	권찰화송회 26		전도화송회 및 배가	상가발표회 25	선교
	28-3		장기당회 (1/2)				전도모범지시상 21	말씀예배 31	

사업계획

교육위원회		봉사위원회	건축위원회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충현동산	수업관리 위원회	사무국	출판국	감사위원	인사위원	장학회
학 교	성 경 연 구 원											
	단기수련회 (6~10)	매주 주차장 관리 및 정리	장기회의	공동의회 예산안 상정 장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회 (고)			장기회의				고등부학년별수양회 (20~29)		할간중환발행 (1~2호)			
중)		할간중환포장	3차공사설계안정 장기회의	장기회의				행정감사				
대·청)				장기회의			대학부수양회 (11~13)					
인도자수련회	교역자경전훈련 (17-19)		장기회의						회계감사			장학금수여
계절학교 (치·유·초·소·직전)				장기회의								
	교사양성부 24개강 (2)		3차공사착공예정		교회일반비품조사							
부원	전교인성경공부개강 (3)		장기회의		요지조성 (3/15~6/15)							
년			장기회의		전대발조성 (20~30)							
				장기회의					할간중환발행 (3~4월호)			
회 (4/5)		할간중환포장			녹화사업 (4/5~15)							
		교회내·외청소 (8)	장기회의						참기실교집발간 (2)			
부·초·소)				장기회의								
			장기회의									
				장기회의								
4/경로회 (10)			장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11)				장기회의				행정감사				
			장기회의						이교보서발간 (24)	회계감사		
				장기회의					할간중환발행 (5~6호)			
회 (6)		할간중환포장	장기회의					현행				
		수양관대청소 (10)	장기회의			도로공사 (10~20)						
			장기회의									
	양성부 24개강 (29)	2동산청소및전대발		장기회의					마태강해 1집발간 (28)			
	교인성경공부부요식 (30)	참조제거 (7/2)			교회자산재평가	제초작업 (7/1~15)						
회 (8~11)			장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대학부수양회					
부·장 2)				장기회의			계절학교 (청·장 2)					
회 (중)			장기회의				계절학교 (중)		할간중환발행 (7~8호)			
회 (전)		할간중환포장	장기회의				계절학교 (고)					
			장기회의				계절학교 (직전)					
회 (청)	양성 24개강 (10)		장기회의					행정감사	마태강해 2집발간 (16)			
회 (장 1)			장기회의				계절학교 (초·장 1)		설전·후서달고 (25)			장학금수여
	전교인성경공부개강 및양성 25개강 (1)			장기회의		벌채작업 (25~31)						
		1·2동산참조제거 (8)	장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회계감사		
				장기회의		주식성묘 (18)			양반실교집완성및할간			
	교역자경전훈련 (22-24)		장기회의						출판발행 (9-10호)			
		할간중환포장	장기회의						발행보서달고 (10/4)			
회 (9)		교회주변청소 (7)	장기회의									
				장기회의								
		교회및중환동산관상 수 권이 (하순)	장기회의	각위원회사업계획 및예산안수립 (26)								
			장기회의		교회일반비품조사							
				장기회의				행정감사			제작인선	
			장기회의								권장인선	
	성경공부총강·수료 (29)			장기회의					할간중환발행 (11-12)		교사인선	
	양성 25개강 (30)	할간중환포장									설거대인선	
			장기회의							회계감사		
5				예결산인당회상정								
			내장공사완료 예정									
				예·결산의 명세 의회상정								

새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임원과



“

제3차 공사 기공은 3월16일경

”

〈문〉 제1·2차 공사결과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제1차 공사는 본당 교육관 선교관 지하주차장 골조공사였고 제2차 공사는 교육관 선교관 지하주차장 준공공사입니다.

〈문〉 제3차 공사의 내역은 무엇인가요?

〈답〉 3차 공사는 본당공사로서 내장,외장(돌공사),종탑,조경 준공공사입니다.

〈문〉 제3차 공사의 구체적인 공사개요를 알려주십시오?

〈답〉 제3차 공사는 가장 중요한 공사로서 내장은 음향, 난방, 환기, 조명에 많은 신경을 써야되며 종탑은 서울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탑이기 때문에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견고하게 공사하여야 하며 외장은(돌공사) 화강암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좋은 돌을 불히고, 조경은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과 같이 꾸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문〉 소요예산 공정에 대한 스케줄을 알려주십시오.

〈답〉 설계도는 85년12월16일부터 86년 2월 16일까지 완성하고, 시공업채선정은 2월 16일부터 3월15일에 그리고 3차 공사기공은 3월

17일 예정입니다.

〈문〉 제3차 공사에 따른 성도들의 마음자세 혹은 기도제목은 무엇인지요?

〈답〉 86년은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해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건축기금을 세우고 예산을 작성하며 건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기도중입니다. 교인전체가 건축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건축위원회 위원 및 각 부서별 명단을 알려 주십시오.

〈답〉 ▲위원장 임광식장로 ▲부위원장 최석주장로 ▲재정분과위원 이창업장로·정석태장로·하대선장로·박철훈장로·최명환집사 ▲행정분과위원 김영개장로·이태규장로·최무길장로·홍주영집사·김정태집사 ▲홍보분과위원 한경일장로·이창호장로·이현실 권사·이옥녀권사·원도화권사 ▲기술분과위원 김천채장로·오정수장로·진홍용집사 이정우집사·최동규집사·김영은집사·홍춘식집사 입니다.

〈문〉 86년도 1년공사는 어느 선까지 완성 되는지요?

〈답〉 본당 내장공사, 종탑공사,외부(돌공사) 일부 입니다.

추천도서

김창인목사 지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군”

신 성 종

〈목사·본교회 협동〉

그 동안 김 창인 목사님께서 여러 권의 설교집을 내셨지만 이 책만큼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신 적은 없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군]이란 이름 그대로 제직을 비롯한 여러 일군들을 위해서 하신 설교들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지침] 같은 것은 제직들을 위한 특강 내용이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르쳐주기 어려운 것을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평신도들을 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평신도]는 [병신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김 창인 목사님은 그 자신이 지난 수십년간 [천국일군을 기르자]라는 표어 밑에 많은 일군들을 길러 왔다. 평신도들을 병신도들로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신 것이다. 그는 이들 평신도 하나 하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군으로 보고 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드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모든 평신도들에게는 새로운 소명감과 사명을 갖게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그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는 이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특별히 일월에 설교재료로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초신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지가 되고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더욱 돈독히 해주리라 믿는다. 따라서 이 책은 누구에게나 읽어서 은혜되고 들어서 깨닫게 해주는 보기도문 양서이다.

혹 이 책을 읽다가 좀더 생생한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의 설교가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읽을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감사한 것은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책을 출판한 일이다. 김창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필자의 믿음의 아버지이시고 교계적으로는 한국교회의 거성이다. 그의 설교의 특징은 쉽고 듣는 데 부담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 평범한 말속에서도 깊은 은혜의 강이 흐른다. 듣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지만 김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고 어떤 때는 황홀감마저 준다. 청중과의 만남은 라포가 빨리 성립이 되기도 한다. 마라기는 새해를 맞아 선물로서도 받아서 좋고 주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직분의 귀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한다.



충현유치원

김 정 자

(전도사·충현유치원 원감)

1. 세계 최초의 유치원

깊은 숲, 산위에 있는 옛성, 오래교회당, 벽돌집 창가에 만발하게 피어있는 붉은 제라늄, 물맑은 냇물. 이런 풍경이 보이는 곳. 독일 브랑겐 부르크의 숲속이야말로 세계 최초의 유치원이 탄생한 곳이다.

1840년 6월 28일 프리벨은 지상에 유치원(kindergarten)이란 이름을 발표하였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어린이들이 모이는 곳 그곳은 아름다운 화원이다. 그리고 이 화원의 꽃은 어린이들 한사람 한사람이다. 붉은 꽃, 노랑, 꽃잎은 자색의 꽃이며 가지 가지의 꽃이 모두 모이는데 어느 한 꽃을 들고 보아도 그것은 신의 창조의 선물이다.

호화스럽게 피고 향기나는 꽃, 아무도 모르게 피어 있는 가련한 꽃, 어떤 꽃을 보아도 아름답다. '그들대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충분히 성장하도록 키우며 생명의 존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를 하고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세계 유치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프리벨(1782~1852)은 교육자로서 많은 논문을 썼다. 그의 교육철학은 성경에 근거했으며 특히 마18:14『이와 같이 이 소자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프리벨 교육의 중심사상임을 말하였다.

유럽은 유아교육의 발상지이며 유아교육을 확립시킨 곳이다.

유아교육의 근원을 기독교인인 루소, 페스탈로치, 프리벨, 오웬, 몬테소리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유아교육론은 그 주장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근원에는 기독교 정신이 깃들여 있었다.

2. 유아교육의 중요성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간단한 속담이 있다. 인간의 개인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경험한 바가 그 개인 전생애의 심리발달에 깊고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믿어왔다.

유아기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또 그 중요성 때문에 카톨릭이나 전제주의 사회에서는 일찌기 이 유아기 교육에 눈을 돌렸던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소련 공산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의 말이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일이 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하여 나에게 4년간만 달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는 결코 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예로는 북한 노동당에서 최근에 단행한 유아교육의 국가관리를 들 수 있다.

1977년 7월 유네스코 주최로 태국 방콕에서 열린 문교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제의 하나가 유아기 교육이다.

교육자, 심리학자들은 유아기의 거의 모든 인상적이거나 반복적인 경험이 그대로 뇌에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다' 라고 했다.

3. 최초의 충현유치원

우리나라의 1981년 유치원 수는 2950개 였는데 1985년 3 월에는 5645개이며 특히 강남구에 85년 3월에 문교부 산하 관인 유치원만 꼭 90개가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조기교육 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유아교육 전흥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첨단 문화권이라고 일컫는 영동지역에 우리 충현교회가 이전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

졌고 1985년 3월 11일에 설립자이신 충현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에 의하여 충현유치원이 첫 번 개원되었다.

충현유치원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전인교육(총괄적인)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85년에 실시된 특별학습

유아기에 풍부하고 다양한 감각경험, 언어 자극, 문화적 영향 등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유능하게 길러질 수 있다.

교과과정속에 진행되었던 여러가지 행사를 보면 동화대회, 연극관람, K.B.S 방송국, 식물원, 63층 빌딩, 과학관 등지를 견학하였고 고구마 심기 등 자연학습과 여름캠프도 있었고 작품전과 재롱잔치도 열었다.

4월에는 과학관 견학을 하였다. 내부에는 우주, 천체, 바다속, 동·식물 등 여러 분야에 신비스런 것들을 입체로 만들어서 실물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내어 전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립과학관에는 아직도 우리 조상이 원숭이었다고 가르친다. (진화론) 원숭이로부터 발전하여 현대인이 된 변천사를 형상으로 만들어 원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보여 주고 있다. 이때 교사와 어린이들과의 대화.

교 사: 맨처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숭이였나요?

어린이: 호호 하하 아니예요.

교 사: 그럼 누구대요?

어린이: 아담과 하와요. (원숭이를 가리키면서) 이젠 생각주머니가 조그만 박사님이 생각해 낸 것인가봐요.

교 사: 그래 너희들은 생각주머니가 큰 과학자들이 되어야지요.

6월에는 경기도 초월면 충현동산 100평 땅에 고사리 손으로 직접 고구마 순을 심는 자연 학습을 가졌다.

도심지에서 자라는 유아들은 콘크리트 건물과 회색 시멘트 길에 익숙해져서 자칫 자연의 흙냄새, 식물의 자라는 생태도, 또 6월의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의 신비를 모르고 자라기 쉽다.

지방의 어린이는 문화적인 혜택은 덜받지만 진흙을 반죽하여 땀을 만들며 뚝을 쌓고 모래산에 앉아서 친구들과 어울려 집도 짓고 또 모든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을 통하여 배울 수 있고 놀 수 있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환경이 주어진다.

원아들에게는 자연의 섭리와 식물의 생장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0월에는 콧등에 송글송글 땀을 흘리며 고구마를 캐다. 입을 함박만큼 벌리고 신기해 하였다.

7월 방학중에는 1박 2일로 용인 자연농원 어린이 캠프장으로 캠프를 갔었다. 대자연과 각종 동물들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대하여 탐구를 자극시켜 주며 부모님을 떠나 생활해 보게 함으로써 자립심을 키우게 하였다.

친구들과 쉽게 접근하고 원만하게 사귀어가는 지혜를 익히고 집 밖의 낯선 지리적, 물리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등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는데 그 학습의 목적이 있었다.

9월에 파랑새극장, 12월엔 예술극장에서 연극을 보면서 어린이들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노래를 하고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정서교육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갈등을 풀어주는 예술에 접하는 경험은 훗날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11월에 있었던 작품전과 재롱잔치는 일년여 동안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배우고 익힌 무대를 조그맣게 마련했었다. 처음 입학할 때는 엄마의 치마자락을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던 꼬마들이 무대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연극, 무용, 합주 노래, 멜로디온연주 등을 하였다.

어른들의 격려속에 여러면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5. 맺는 말

유아교육이 순간적인 애정이나 유행하는 교육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프리벨의 말을 빌면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어린이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오늘의 세계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들이 빛나는 청년이 되고 그리고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지켜 나갈때 그들은 지나간 과거의 어린시절을 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잊어도 좋다. 그때에 그들이 자라고 양육받아 온것이 지금 그들을 돕고 선도하며 지혜와 같이 그들의 일생을 축축히 축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들을 아끼는 모든 이들의 바램일 것이다.

충현유치원 이사회 구성

이사장/ 김창인

이 사/ 우기전, 박용삼, 정하우, 최석주

조영길, 윤명식

원 장/ 우기전

원 감/ 김정자

교 사/ 이미라, 한혜경, 전성자

1986년 각위원회 임원명단

당 회

당 회 장/ 김창인
당 회 서 기/ 이응선
당 회 부 서 기/ 이태규
윤명식

제 직 회

회 장/ 김창인
서 기/ 손경수
부 서 기/ 한송규
이 옥
황영일
회 계/ 박철훈
구 제 부 장/ 김원선
봉 사 부 장/ 이희원
예 전 부 장/ 신현상
미 화 부 장/ 박옥식

구역권찰회

회 장/ 김원남
서 기/ 박영식
부 서 기/ 양종섭
1 교구담당/
한영철 임태주
박승준 남선우 오정현
한경일 최무길
2 교구담당/
김원남 이진희
임광식 박관영 조인제
김광신 김종구
3 교구담당/
윤용규 유순화
정하우 윤명식 오정수

박용삼 조선근
4 교구담당/
안석렬 최순복
이영세 서동석 정광호
이 훈 최상규
5 교구담당/
이양우 정복인
박철훈 김영개 윤광일
김천채 박인세
6 교구담당/
조영길 구명신
오진국 최성현 유윤진
하대선 송기홍
7 교구담당/
김영구 장영자
정운석 이병학 강은원
최대원 강순용
8 교구담당/
이원길 현정남
김은호 김경철 문홍구
이상현 박치민
9 교구담당/
김창근 이두란
엄필성 김방진 손동운
이창호 우기전
10 교구담당/
이세열 김경성
윤인현 홍중섭 최성림
마성락 김원선
교구 간사
1 교구 간사/
엄균영 최윤택
2 교구 간사/
김세홍 임무천
3 교구 간사/
김정태 김기철

4 교구 간사/
박인건 이요섭
5 교구 간사/
이해경 정쾌명
6 교구 간사/
김종연 박덕양
7 교구 간사/
오인근 홍성욱
8 교구 간사/
최만수 이용현
9 교구 간사/
마숙전 이실호
10 교구 간사/
김점석 김영수
상임 간사/ 이대길

예배위원회

위 원 장/ 한영철
위 원 (교역자) / 안석렬
총 무/ 김은호
성례 부 장/ 김은호
예배 1·2 부장/ 김원선
예배 3·4 부장/ 손동운
예배 5 부 장/ 문홍구
위 원/
최순복 백죽심 이희원
김 신

성가위원회

위 원 장/ 김창근
총 무/ 김천채
제 1 찬양대 장/ 조인제
제 2 찬양대 장/ 노광현
제 3 찬양대 장/ 김천채

제 4 찬양대 장/ 홍중섭
제 5 찬양대 장/ 박용삼
선교찬양대 장/ 이 훈
여성찬양대 장/ 정경자

전도위원회

위 원 장/ 이세열
민족복음화연구소
소 장/ 이양우
총 무/ 강은원
서 기/ 김여순
회 계/ 이여송
교회성장부 장/ 강은원
농어촌전도부장/ 김경철
도시전도부장/ 유윤진
산업전도부장/ 조인제
군경전도부장/ 이상현
의료전도부장/ 이종석
제 1 남전도회장/ 최대원
제 2 남전도회장/ 강은원
제 3 남전도회장/ 오정수
한나여전도회장/ 노영숙
에스더여전도회장/ 박영엽
상 임 간 사/ 정정주

북한선교위원회

위 원 장/ 오진국
위 원(교역자)/ 조준상
김오용
유창무
총 무/ 최상규
홍 보 부 장/ 박인세
서 기
농어촌전도부장/ 오정현
회 계
전도훈련부장/ 마성락

충현세계선교회

회 장/ 한경일

위 원(교역자)/ 유국남
부 회 장/ 조선근
/ 이옥녀
총 무 서 기/ 최성림
회 계/ 남선우
미주선교국장/ 최성림
아주선교국장/ 강순용
유럽선교국장/ 조선근
중동아프리카
선 교 국 장/ 남선우
공산권선교국장/ 김종구
선교교육훈련국장/ 윤인현
재정지원국장/ 신현상

교육위원회

위 원 장/ 조영길
주교교육및교육연구소담당
/ 윤태곤
성경연구원담당/ 김장근
서 기/ 오태희
회 계/ 최성현
도 서 실 장/ 강모용
교 육 위 원
목 사/ 조영길 윤태곤
김장근 이원길
장 로/ 오태희 우기진
정하우 박승준
엄필성 최성현
김광신

교육연구소
소 장/ 조영길
부 소 장/ 윤태곤
연 구 원/ 김장근
김익경
김성운
김연이

상임간사/ 이종국
주교 1 부
영 아 부
지 도/ 정소영
부 장/ 엄필성
부 감/ 김상규 한경숙

유 치 부
지 도/ 정연희
부 지 도/ 김정자
부 장/ 정광호
부 감/ 김상덕 이정현
주교 2 부

유 년 부
지 도/ 김연이
부 장/ 송기홍
부 감/ 한송규 명정옥
초 등 부
지 도/ 남창우
부 장/ 정운석
부 감/ 양종섭 김정자

소 년 부
지 도/ 김성운
부 장/ 송환창
부 감/ 노문환 배옥인
주교 3 부

중 등 부
지 도/ 이원길
부 장/ 서동석
부 감/ 임부천 지정애

고 등 부
지 도/ 김익경
부 장/ 김광신
부 감/ 김환기 공향조

대 학 부
지 도/ 윤용규
부 장/ 정하우
부 감/ 황의만 안춘전
주교 4 부

창 년 부
지 도/ 김장근
부 장/ 오태희
부 감/ 손경수 손명순
년 2 부
지 도/ 이성근
부 장/ 이병학
부 감/ 이 옥 백죽심
장 년 1 부
지 도/ 김희보
부 지 도/ 김동렬

부 장 / 우기전
부 감 / 박영식 이신일
소 망 부
지 도 / 조영길
부 지 도 / 김정순
부 장 / 박인세
부 감 / 김재명 김정옥
주교 5부

직장전도교육부
지 도 / 김오용
부 지 도 / 장혜순
부 장 / 오정현
부 감 / 김인관 임옥순
새 가 정 부
지 도 / 윤영탁
부 장 / 박승준
부 감 / 원응철 안인현
새 신 자 부
지 도 / 구명신
부 지 도 / 정금숙
부 장 / 이영세
부 감 / 김정태 이명자
세 레 부
지 도 / 김원남
부 장 / 최무길
부 감 / 황영일 윤재춘

봉사위원회

위 원 장 / 박치민
총 무 / 오정수
위 원 /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김경철 이창호 박지홍

건축위원회

위 원 장 / 임광식
부위원장 / 최석주
서 기 / 이창업 최무길
회 계 / 하대선
위 원 /
이태규 김영개 김천 채
윤종성 한경일 정석태
박철훈 이창호 오정수

김정태 이옥녀 이현실
원도화 최명환
기술분야 /
홍주영 최동규 이정우
김영은 홍춘식 진홍용

재정위원회

위 원 장 / 최석주
서 기 / 최대원
회 계 (건축) / 하대선
(일반) / 박철훈
위 원 /
오정수 한경일 이옥녀
유순녀 김석운
노영숙 김광남 김정태
김형선 임기채 최명환
박영엽

자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윤종성
위 원 /
고병욱 노광현 김영길
윤광일 오정수 주원홍
김재명 김종연 김영생
설관호 김점석

재단법인총현동산

위 원 장 / 신현상
위 원 / 김방진
주원홍
감 사 / 김영개
김경칠

수양관 관리위원회

위 원 장 / 정석태
총 무 / 고병욱
위 원 /
이창호 서일영 윤승현

사 무 국

국 장 / 이태규
위 원 / 박주한

출 판 국

국 장 / 조현명
지 도 / 김장근
간 사 / 김차생
위 원 /
조선근 · 손경수
당 연 직 위 원 /
조영길 · 김원남 · 이응선

감시위원회

위 원 장 / 김영개
위 원 /
박관영 송환창

인사위원회

위 원 장 / 이응선
위 원 /
김원남 조영길 김창근
조현명 김기정 윤종성
이태규 김차생 윤명식
이두란 최순복

장학위원회

위 원 장 / 윤명식
위 원 /
김영삼 박재용 이영세
이원희

성경을 배우시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10여년 전에 이미 우리 교회에 성경연구원을 세워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늘 새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바르게 일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공부는 성도의 신앙 생활의 시작이며 동시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바르고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데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먼저 말씀을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건강을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신 이 때에 한분도 빠짐없이 성경공부에 참여합시다.

1986년 1월 20일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설립목적

충현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 1)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고 체계있게 공부한다.
- 2)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여 성경교사로 양육한다.
- 3) 천국 일꾼으로서 자질을 향상하여 일꾼으로서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케 한다.

●학 제

- 1) 수업연한은 2년(4학기)이다.
- 2) 한학기는 4개월간이다. (1학기: 3월~6월말, 2학기: 9월~12월초)
- 3) 수업은 월, 화, 수, 목, 토요일이며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다.

●학 칙

- 1) 매학기 수료할 때마다 과목 이수증을 수여한다.
- 2) 4학기 이수자에게 성경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한다.

- 3) 입학한 후 부득이 매학기 계속하지 못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한다.
- 4) 졸업학점은 8학점이며 필수 6학점, 선택 2학점이다.
- 5) 1학점은 1책 1학기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 6) 출결석은 3/4이상이어야 한다.

●입학자격

- 1) 충현교회 교인에게 우선권이 있다.
- 2) 타교인이더라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자이면 입학이 가능하다.
- 3) 학력, 연령, 신분, 직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입학안내

- 1) 수업기간: 1986년 3월 1일(토)~6월 30일(월)
- 2) 수강신청접수: 1986년 2월 1일(토)~3월 1일(토)까지
- 3) 수강신청료: 과목당 1,000원(1인 2과목 이상도 가함)

● 시간 및 과목

(1986년도 제 1 학기)

요일	반	낮 반	밤 반	비 고
화		창 세 기 김장근목사	스가랴의 이상 김희보목사	시간 : 낮 / 오전 10시 밤 / 오후 7시
수		교리연구와 생활적용 윤태곤목사		
목		고린도전후서 윤형철목사	신 명 기 조영길목사	장소 : 교육관 301호
토		사 도 신 경 임종만목사		

● 교과목 및 강사소개

스가랴의 이상 (김희보 목사)

성경 전체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을 “구약의 복음서”로 일컬어지는 스가랴서를 통하여 무한한 진리의 보고에서 주옥같은 말씀을 깨는 기쁨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약학의 석학이신 김희보 교수님의 친절하고도 명쾌한 강의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 (임종만 목사)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지며, 어떻게 거룩해지며, 그리스도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신앙의 혼탁과 혼미속에서 사는 오늘을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진단하여 당신의 신앙을 확고히 함으로 삶의 확신과 기쁨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후서 (윤형철 목사)

고린도전후서는 교회 생활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책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문제를 취급하면서 교회의 일치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설교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야 하며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기독교 윤리는 지식이상의 것이고 제해 이상의 것임을 강사의 지적이면서도 열정적인 강의를 통하여 분명히 하고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신명기 (조영길 목사)

“이것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명기에서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라는 장엄하고도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는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신자의 기본 삶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사의 깊은 묵상과 분석, 분해적 접근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리연구와 생활적용 (윤태곤 목사)

“교리”란 본래 “-같이 보인다, -으로 믿는다”의 뜻으로 진리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말씀과 신앙의 골격을 확립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또한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인가 라는 명제아래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체계화하여 당신을 말씀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강사의 명석하고 차분한 강의는 혼탁한 이시대를 사는 신자에게 길과 진리를 제시할 것입니다.

창세기 (김장근 목사)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와 문화의 시작과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시작의 책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의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들과 그의 나라의 성취과정과 그들의 생애를 조명해 봄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그 방향을 모색케 될 것입니다.

이 존귀한 말씀을 귀납적 성경공부 방법으로 조직,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관하여

문 : 나의 기도에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뭔가 잘못됐는지요? 기도응답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 영 구 목사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엔 다음 두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를 바로 했나?

둘째는 기도의 응답을 바로 이해하고있나? 하는 점입니다.

먼저 기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요긴합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열렸는가?

회개치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북관계보다 더욱 캄캄하고 소망없는 적대관계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난 자들만이 견고한 기초 위에서 기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그 관계에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깨끗이 청산치 못한 죄와 허물은 기도의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사59 : 1 - 3)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 (잠10 : 3)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약5 : 16하)

3. 그가 기뻐하시는 기도제목인가?

우리의 관심사는 좁고 편협한 이기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제목으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주기도가 바로 대표적인 지침입니다 (마6 : 9 - 13, 마6 : 33등).

4. 기도하는 마음자세가 올바른가?

기도하는 마음은 먼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기도는 금물입니다 (마6 : 5 - 6). 또한 믿음의 자세가 요긴합니다. 믿음없는 기도는 야고보서 1 : 5 - 8에서 지적하듯 허공에 뜬 기도입니다. 주께서

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마8 : 13, 9 : 29, 막11 : 23, 24) 또한 간절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낙심을 모르고 끈기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눅11 : 5 - 13, 18 : 1 - 8)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을 바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주문대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계와는 다릅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우주보다 크신 의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부당한 요구에는 침묵으로 '아니다' 라고 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성실치 못한 요구에는 뜨거운 소원으로 불붙기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허락'과 '안된다'와 '기다려라'로 올 수 있는데 그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응답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 자신을 통해 오기도 하며 주위환경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기도 한 후 지금까지의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고통이 위로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변화가 오면 기도응답은 이미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해결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 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릴 일만 남아 있게 됩니다.



충현신문



■ 성탄축하음악예배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에는 2부 찬양대(중·고등부)가 주관하여 음악예배를 드렸고, 22일 오후 7시에는 3부 찬양대가 음악예배를 드렸으며 25일 오후 7시에는 유·초·소년부가 성탄축하음악예배로 드렸다.

■ '86년 신년예배

교회는 86년 신년을 맞아 지난 1월 1일 5부에 걸쳐 본당에서 신년예배를 드렸다. 3부예배(오전 10시 30분)에서는 김창근목사 사회로 진행, 김창근목사의 기도, 성경 딛후 1장 7~8절 봉독한 후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새해의 신앙생활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 단기수련회

「성숙한 성도, 더욱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개최된 86년도 단기수련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10일까지 본당, 교육관 및 선교관에서 실시되었다.

교육위원회 성경연구원이 주관한 동 단기수련회에서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86년도 목

회방침이 시달되었고, 교역자 및 장로, 제직 및 권찰, 주교교사 및 찬양대원 그리고 회계(각 지회 및 주교각부)와 교회직원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가 진행되었다.

동 기간중의 강사 및 강의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창인목사/86년도 목회방침
△박명수목사/교회성장에 있어서 교역자와 장로의 역할
△최석주장로/86년도 교회재정정책
△이태규장로/86년도 교회직원 업무자침
△김원남목사/86년도 구역권찰회 운영과 그 방향
△조영길목사/86년도 교육위원회 운영과 방향
△김창근목사/86년도 성가위원회 운영과 방향
△이양우목사/86년도 전도전략과 그 목적
△김영개장로/회계의 실무와 감사

또한 동 기간중에 실시된 단기수련 부흥사경회는 정필도목사(부산 수영로교회 시무)를 강사로 새벽기도회, 낮공부, 저녁부흥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연인원 9,898명이 참석하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 특별제직회

지난 12월 29일 4부예배 후 본당 101호에서 85년도 결산및 86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제직회가 열렸다.

■ 중·고·대 동기수양회

본교회 교육위원회 산하 고등부(부장 김광신장로)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충현수양관에서 학년별 동기수양회를 개최했다.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찬」이란 주제로 개최된 동 수양회의 강사는 김익경 목사였다.

중등부(부장 서동석장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교육관 407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란 주제로 동기수양회를 개최했는데 강사는 이원길목사였다.

한편 대학부(부장 정하우장로)는 지난 14일부터 30일까지 충현수양관에서 학년별 수련회를 가졌으며 강사는 윤용규목사였다.

대학부 동기수양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충현수양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 공동의회

교회는 지난 5일(주일) 4부예배시에 85년도 결산 및 86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어 새해예산 경상비 18억 7천 768만원과 건축예산 26억 3천 2백56만 7천원을 통과시켰다.

일반 경상비는 작년(85년도)에 비해 약 9%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 86년도 제 1차 성례식

교회는 86년도 제 1차 성례식을 지난 1월 16~17일 본교회당에서 가졌다.

이번 성례식에서는 학습 127명, 세례 112명, 유아세례 33명,

입교23명, 개종3명 등 총 298명이다.

한편 성찬식은 1월 19일 주일 5부에 걸쳐 실시되었다.

■ 헌금작정

지난 12월 1부~5부에 걸친 예배시에 86년도 십일조 및 월정헌금 작정이 있었다.

■ 공로장로 추대식

지난 1월 5일 특별제직회시에 그동안 감사위원장으로 수고하시던 윤종순장로의 공로장로 추대식이 있었다.

■ 통일기원 망향예배

사단법인 북한선교원이 주최한 통일기원 망향예배가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11시30분임진각 자유의 다리앞에서 있었다.

이날 예배는 유창무목사의 사회로 진행, 김기정장로의 기도, 북한선교 어린이합창단의 찬양, 조준상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이후 특별기도로 ①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춘권집사 ②북한선교를 위하여 김춘지집사 ③한국교회를 위하여 문옥순집사 ④지도자를 위하여 김상순집사가 각각 기도했다.

■ 송구영신 축복성회

북한선교원에서 주관한 송구영신 축복성회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열렸는데 강사는 김창인목사, 이호문목사, 조준상목사였다.

■ 성가위원회 총회

지난 12월 28일 오후 6시에 교육관 109호에서 성가위원회 총회가 있었다.

■ 구역권찰회 총회

구역권찰회 총회가 지난 12

월20일 오전 10시30분 본당101호 및 부속건물에서 있었다.

■ 엑스포로85

엑스포로85 전도집회가 지난 12월26일 부터 1월1일까지 (매일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는데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대회장으로 수고했으며 특히 이번 집회는 전세계 도시에 동시에 위성중계되어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 주교교사 총회

지난 12월26일 오후 7시 본당101호 및 부속건물에서 주교교사 총회가 있었다.

이날 85년도 사업보고 및 86년도 신사업 채택과 주교각부 조직개편 (부장, 지도교역자, 처과장) 및 반편성이 이루어졌다.

■ 교육위원회 총회

지난 12월21일 오후 5시에 교육관301호에서 교육위원회 총회가 있었다.

이날 주일학교 교칙수정과 85년 사업보고 및 86년 사업예산 채택했다.

■ 각부 회계감사

각부 회계감사가 지난 12월 8일, 15일 2주간에 있었다.

■ 주일학교 각부 교사 임명

지난 12월8일 4부예배시에 주일학교 각부 교사 648명이 임명되었다.

■ 세계선교회 정기총회

지난 11월24일 오후 2시 선교관 404호에서 세계선교회 (회장 한경일장로)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날 85년도 회계보고와 사

업보고 및 86년도 실행위원 선출과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 어우름 음악회

주일학교 청년부가 주최한 「어우름」 음악회가 지난 12월 14일 오후 5시30분에 새신자부실에서 있었다.

■ 수도노회산하지교회 제직수련회

지난 12월25일~28일까지 (매일 오후 6:30~9:30) 왕십리교회당에서 당회장 김창인목사와 여러분을 강사로 모시고 수도노회산하지교회 제직수련회가 있었다.

■ 전도왕 시상

전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구역권찰회 총회시 10명 이상 전도한 85년도 전도왕 시상이 있었다.

85년도 전도왕은 다음과 같다. 조계진권사 / 46명, 정순자집사 / 17명, 최금순권사 / 10명

■ 전도위원회 총회

전도위원회 총회가 12월22일 오후 3시에 있었다.

이날 85년도 결산과 86년도 사업을 수정하고 각 담당 부장을 임명하였다.

위원장 / 이새열목사
민족복음화연구소장 / 이양우목사
총무겸교회성장부장 / 강은원장로

서기 / 김여순집사
회계 / 이태송집사
농어촌전도부장 / 김정길장로
도시전도부장 / 유윤진장로
산업전도부장 / 조인제장로
군경전도부장 / 이상현장로
의료전도부장 / 여종석집사

■ 자매결연

전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수) 저녁예배시 치하철 역삼역(역장 염병식)과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역삼역에서는 매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에스컬레이터(자동계단)를 가동하여 교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의료전도단 총회

의료전도단 총회가 12월 1일 3부 예배후 선교관304호에서 있었다.

이날 86년도 의료전도단장에 이종석집사(국립의료원)가 피선되었다.

■ 남·여전도회 총회

지난 12월15일 4부예배후 남·여전도회 총회가 있었다.

이날 85년도 결산 및 86년도 사업계획, 예산수립과 임원 선출이 있었다.

제1 남전도회장 / 최대원

부회장 / 김원선

제2 남전도회장 / 강은원

부회장 / 손경수

제3 남전도회장 / 오정수

부회장 / 권명옥

한나연합회장 / 노영숙

총무 / 이신일

한나1 지회장 / 박옥식

한나2 지회장 / 전순자

한나3 지회장 / 김매너

한나4 지회장 / 신명희

한나5 지회장 / 임순철

한나6 지회장 / 백영희

한나7 지회장 / 김경희

한나8 지회장 / 박은숙

한나9 지회장 / 김은애

한나10지회장 / 유순녀

에스더연합회장 / 박영엽

총무 / 이명자

에스더1 지회장 / 양선자

에스더2 지회장 / 홍명순

에스더3 지회장 / 이경현

에스더4 지회장 / 이형숙

에스더5 지회장 / 양경자

에스더6 지회장 / 최태욱

에스더7 지회장 / 정옥영

에스더8 지회장 / 강동화

에스더9 지회장 / 정민자

에스더10지회장 / 지경애

■ 남전도회 임원연합회

남전도회 임원 연합회가 지난 12월22일 오후 4시 선교관402호에서 있었다.

이날 임명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남전도회 연합회장/최대원

총무/강은원

회계/오정수

■ 구호품 우송

전도위원회 산하 에스더 여전도회에서는 지난 12월12일 케냐 선교사(김선옥선교사)에게 구호품 25상자를 우송하였다.

그곳 실정이 마치 우리의 60년대와 같은 상황이어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옛날 우리들의 생각을 하면서 수집하여 보냈다.

우송비용 42만2천5백원을 에스더 각 지회에서 부담했으며 그 일부를 김정태집사 가정에서 부담했다.

■ 위문품 전달

한나2,5,10지회에서는 지난 12월19일 전방군부대(7726부대)를 위해 석유난로 10대 및 장갑 600점, 털기덮개 600점, 굴 18상자, 떡 600명분을 전달하였다.

■ 선교사진전 및 이스라엘 문물전

세계선교회에서는 선교주일을 맞아 선교사진전 및 이스라엘 문물전을 열었다. 이스라엘 문물전은 1월19일부터 1월26일

까지 선교관 4,5층 특별전시장에서 열렸다.

■ 전도위원회-주교간담회

지난 1월21일 오후 6시에 주교 교역자, 부장, 부감, 전도부장과 전도위원과의 86년도 주교 부흥발전책을 연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선교관304호에서 가졌다.

■ 남·여지회 임원교육

전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6일 오후 5시에 86년도 남·여지회 임원교육을 교육관 212호실에서 가졌다.

■ 전도위원회-교구간담회

지난 1월26일(주) 오후 4시 30분에 교구교역자, 지역장, 간사와 전도위원과 86년도 교구 활성화 및 남·여전도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좋은 의견을 수립, 교환하였다.

■ 군전도대원 파송예배

전도위원회에서는 교우자녀 및 교우중에서 군입영자를 위해 매월 1회 군전도대원 파송예배를 드리며 제대할 때까지 계속하여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지도, 육성을 지원키로 하여 2월 첫주에 첫 군전도대원 파송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우들께서는 군입영자를 전도위원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찰임명

지난 12월 1일 4부예배시에 권찰 503명 임명과 함께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 등 교구일군 1,954명이 임명되었습니다.

교

우

동

정

새교우

역삼구	차북녀	마장구	위승옥	개포구	홍승전	행당구	조용규
신림구	정이영	도곡구	조석구	신반포구	박용간	개포구	김용래
개원구	박시자	신곡구	유선희	일원구	양명숙	노원구	성남선
송파구	김은경	신곡구	최미숙	아현구	이영호	노원구	정계희
영등포구	김인솔	안양구	박순자	잠실구	유화남	노원구	이정중
광복구	김금자	가락구	오준원	삼성구	이복만	노원구	김덕부
도곡구	최규도	지곡구	윤영미	방배구	이춘자	노원구	안정림
신림구	임경미	삼곡구	장정희	일원구	이명연	노원구	나은희
광명구	안홍남	이곡구	윤경자	부천구	김인자	노원구	권백용
송파구	김도균	방배구	이양란	영등포구	전은주	노원구	권정철
송파구	윤경로	이곡구	홍낙관	영등포구	문영미	노원구	유상순
송파구	조미영	시흥구	조순해	영등포구	남창일	노원구	최난주
송파구	김성훈	정자동	장경순	영등포구	최윤선	노원구	박종익
송파구	엄태림	잠실구	박계순	영등포구	박차천	노원구	김종실
송파구	어선진	사당구	박영순	영등포구	정복금	노원구	송애선
송파구	최복순	노원구	윤석영	영등포구	정미	노원구	노순미
송파구	한승찬	노원구	강신자	영등포구	김명찬	노원구	강정자
송파구	박귀숙	노원구	유명옥	영등포구	홍현성	노원구	김연호
송파구	이희순	노원구	최병익	영등포구	김용순	노원구	양순희
송파구	강상옥	노원구	임정옥	영등포구	최종준	노원구	박동희
송파구	최명식	노원구	김현실	영등포구	허준문	노원구	김숙희
송파구	배인선	노원구	홍성희	영등포구	유영선	노원구	이규숙
송파구	차홍숙	노원구	이애경	영등포구	김명식	노원구	한자은
송파구	김복희	노원구	김차영	영등포구	이용희	노원구	변영주
송파구	안효백	노원구	남은숙	영등포구	이재영	노원구	박순석
송파구	권신애	노원구	강민식	영등포구	임소일	노원구	이찬호
송파구	정재희	노원구	박순애	영등포구	강금지	노원구	하상명
송파구	김윤정	노원구	장백만	영등포구	이명자	노원구	신현필
송파구	임금순	노원구	문득만	영등포구	김광명	노원구	김광선
송파구	나현순	노원구	박계순	영등포구	정창길	노원구	백현옥
송파구	이광룡	노원구	송순임	영등포구	이봉자	노원구	신형호
송파구	이용열	노원구	박동순	영등포구	이정석	노원구	박광배
송파구	정호진	노원구	김 분	영등포구	백말순	노원구	이상훈
송파구	조순경	노원구	이상구	영등포구	김 경	노원구	박영남
송파구	김길리	노원구	강 옥	영등포구	이영자	노원구	박우성
송파구	백경석	노원구	손사현	영등포구	이현숙	노원구	엄종배
송파구	최희진	노원구	정점순	영등포구	박성일	노원구	이영수
송파구	송용수	노원구	권승중	영등포구	김정원	노원구	김경순
송파구	송해덕	노원구	정 건	영등포구	양숙자	노원구	홍승만
송파구	이명주	노원구	최병준	영등포구	최순선	노원구	염상기
송파구	우태보	노원구	전학기	영등포구	김병복	노원구	이성순
송파구	소미희	노원구	김유원	영등포구	박창준	노원구	최재구
송파구	남순희	노원구		영등포구	김유준	노원구	함영자
송파구		노원구		영등포구	김혜순	노원구	이미숙

결혼

▲강경덕군과 김은경양(김은수 문옥순집사 딸) 10월 21일 12시.

▲임달수군과 송미령양(김종렬집사 딸) 10월22일 12시30분.

▲서영기군과 이지연양(이경순씨 이정희권찰 딸) 10월26일 12시.

▲신진숙양(신정수씨 딸) 10월28일 오후 1시.

▲이성수군(이영희씨 송병전 권찰 아들)과 양혜진양 10월29일 오후 1시.

▲김재겸군(김용순씨 박복실 권사 아들)과 여옥희양 11월 2일 12시.

▲김재덕군(김숙자씨 아들)과 권혜진양(권형낙씨 서상옥 권사 딸) 11월 2일 12시.

▲조병호군(서기순씨 아들)과 최 경양 11월 2일 오후 2시.

▲정재홍군(정천섭씨 계순옥 권사 아들)과 박학선양 11월 5일 12시30분.

▲이성찬군과 이미경양(3부 찬양대원 이남호집사 여옥기권사 딸) 11월 9일 오후 2시.

▲김재만군(김여수씨 박순명 집사 아들)과 김지애양 11월 9일 오후 2시30분.

▲이창환군(1부찬양대원)과 박정미양 11월16일 12시30분.

▲송영기군(신갑범집사 아들)과 나미영양 11월16일 오후1시.

▲고문봉군(고준희씨 최예순 권찰 아들)과 박금숙양(청파구역) 11월16일 오후 2시.

▲김남중군(동두천구역)과 김홍운양 11월16일 오후 3시.

▲최석암군(임춘선권사 아들)과 임은정양(강동구역) 11월21일 오후 1시.

▲정연수군(초등부 교사)과 조정미양(의정부구역) 11월23일 오후 1시.

▲우기훈군(우병춘 고인규집사 아들)과 권혁순양 11월23일 오후 1시.

▲주한중군과 이신애양(이응집사 딸) 11월27일 12시.

▲조인수군(조계영씨 윤정덕 집사 아들)과 백운옥양 11월30일 오후 2시30분.

▲이승종군(이규민집사 아들)과 채란희양 12월3일 오후 2시.

▲이영종군(이규민집사 아들)과 이현숙양 12월 3일 오후 2시.

▲김옥영양(김여수씨 박순명 집사 딸) 12월 7일 12시.

▲송명목군(송인홍집사 최현주권사 아들)과 안현숙양 12월 7일 오후 1시.

▲명종남군(명금동씨 김봉래 권찰 아들)과 전해경양 12월 9일 오후 5시.

▲이석군과 최미정양(김영희 권사 딸) 12월12일 12시30분.

▲조은래군과 권숙희양(8교구 문정구역) 12월14일 오후 2시.

▲김희수군(김영수집사 동생 이순덕권사 아들)과 김옥인양(중등부 교사) 12월16일 오후 3시.

▲구성혁군과 박소연양(박상운집사 김정례권사 딸) 12월27일 오후 2시.

▲김현수군(이학주권사 손자 김성주장로 아들)과 김경희양 1월 3일 12시.

▲성동주군(강유점권사 아들)과 권옥주양 1월18일 오후 1시30분.

별세

▲김홍규씨(신당구역 김은균 권사 부군) 10월22일 별세.

▲궁석윤씨(잠실4-3 김정연 집사 부군) 10월27일 별세.

▲황일성씨(한나1구역 이성애씨 부군) 11월 2일 별세.

▲오두한씨(인천구역 대학부 오은미양 부친) 11월13일 별세.

▲박유임씨(오종근집사 부인 신동기집사 시모) 11월27일 별세.

▲권영수씨(논현19 흥승순씨 부군) 11월28일 별세.

▲황창룡장로(김선복권사 부군) 11월30일 별세

▲박문생씨(답십리구역 박상근 김경자씨 부친) 12월 1일 별세.

▲박성자씨(개포2구역) 12월 1일 별세.

▲박상희권사(권용 계정순집사 시모) 12월 3일 별세.

▲김철희씨(역삼1구역 장옥순집사 부군) 12월13일 별세.

▲김원수씨(수유1-1 황금년씨 부군) 12월13일 별세.

▲김용주집사(효자구역) 12월17일 별세.

▲김택도권사(봉천9구역 이배근집사 모친) 12월25일 별세.

▲최진여집사(신당6구역) 12월23일 별세.

▲이건배씨(면목6구역) 12월 27일 별세.

▲최훈기씨(삼성구역) 12월 29일 별세.

▲김목일씨(월계구역 김창국 집사 부친) 1월 6일 별세.

▲박송절권사(필동2-1 구역 전성조권사 모친) 1월6일 별세.

▲이영일집사(중곡구역 고정임권사 부군) 1월 6일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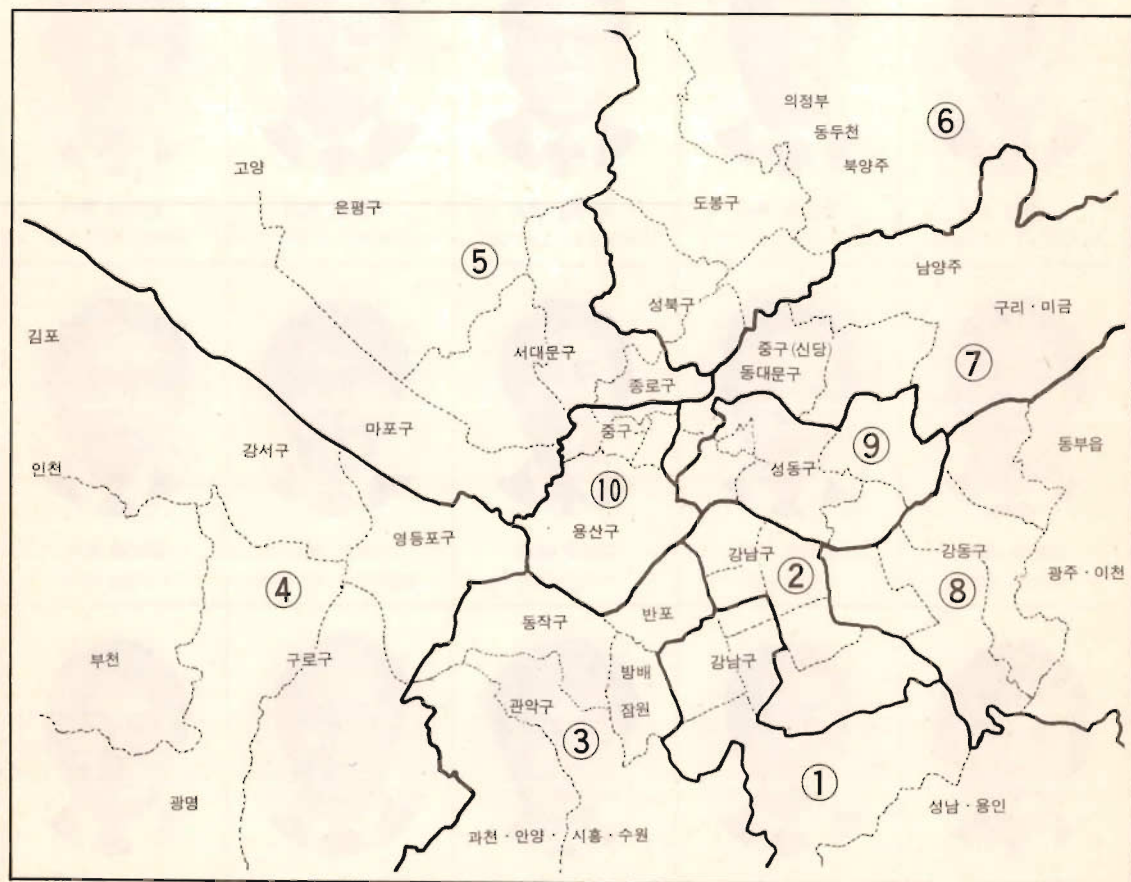
총현교회 당회원 (장로)

 김 창 인 (당 회 장)	 조 현 명 (출판국장)	 김 한 홀	 김 기 정 (인사위원)	 윤 중 성 (자산관리위원장)	 임 광 식 (건축위원장)
 최 석 주 (재정위원장)	 이 태 규 (사무국장)	 이 응 선 (당회서기및인사위원장)	 홍 중 섭 (제 4 전임대장)	 한 경 일 (세계선교회장)	 정 석 태 (수양관관리위원장)
 최 성 림 (세계선교회서기)	 김 영 삼 (장학위원)	 이 원 철	 윤 명 식 (장학위원장)	 조 선 근 (세계선교회부회장)	 김 은 호 (예배위원회총무)
 오 태 희 (청년부부장)	 김 영 개 (감사위원장)	 김 방 진 (중현동산위원)	 감 순 웅 (세계선교회아주선교국장)	 마 성 락 (북한선교회회계)	 김 차 생 (출판국간사)
 신 현 상 (중현동산관리위원장)	 고 병 옥 (수양관관리위원회총무)	 김 경 철 (전도위원회홍어촌전도부장)	 우 기 전 (장년 1 부부장)	 손 동 운 (예배 3 · 4 부장)	 노 광 현 (제 2 전임대장)
 이 창 업 (건축위원회서기)	 김 원 선 (예배 1 · 2 부장)	 오 진 국 (북한선교회위원장)	 박 치 민 (봉사위원장)	 정 하 우 (대학부부장)	 이 병 학 (장년 2 부부장)

					
박 인 세 (소망부부장)	서 일 영 (수양관리위원)	하 대 선 (재정위원회회계)	안 익 태	윤 인 현 (세계선교회교육훈련국장)	최 대 원 (재정위원회서기)
					
최 상 규 (북한선교회원회총무)	박 승 준 (새가정부부장)	엄 필 성 (영아부부장)	정 광 호 (유치부부장)	송 기 홍 (유년부부장)	박 채 웅 (장학위원)
					
강 은 원 (전도위원회총무)	강 모 웅 (도서실장)	오 정 현 (직전부부장)	최 성 현 (교육위원회회계)	이 훈 (선교전양대장)	김 광 신 (고등부부장)
					
남 선 우 (세계선교회회계)	서 동 석 (중등부부장)	박 과 영 (감사위원)	송 환 창 (소년부부장)	이 영 세 (새신자부부장)	정 운 석 (초등부부장)
					
김 영 길 (봉사위원)	문 홍 구 (예배 5부장)	조 인 제 (제 1 전양대장)	박 철 훈 (제직위원회)	박 용 삼 (제 5 전양대장)	이 상 현 (전도위원회군경전도부장)
					
김 재 균	김 중 구 (공산권선교국장)	최 무 길 (세례부부장)	윤 광 일 (자산관리위원)	김 천 채 (제 3 전양 대장)	이 창 호 (수양관리위원)
		공로 및 명예장로			
오 정 수 (봉사위원회총무)	차 신 득			강 지 순	김 천 준

 우 성 원	 한 명 목	 윤 종 순	 윤 두 한	 전 희 문	협동장로
 지 영 식	 유 윤 진 (전도위도시전도부장)	 윤 승 현 (수양관관리위원)	 박 지 호 (봉사위원)	 이 원 회 (장학위원)	
				 박 주 한 (사무국위원)	

86년도 교구분할도



충 현 교 회 교 역 자



김창인 목사 (당회장)



김원남 목사
(구역권찰회장, 2교구담당)



한영철 목사
(예배위원장, 1교구담당)



이성근 목사
(문서선교사)



김창근 목사
(성가위원장, 9교구담당)



조준상 목사
(북한선교위원회 지도)



이세열 목사
(전도위원장, 10교구담당)



조영길 목사
(교육위원장, 6교구담당)



유국남 목사
(세계선교연구소장)



이양우 목사
(5교구담당)



안석렬 목사
(4교구담당)



김영구 목사
(7교구담당)



이원길 목사
(중동부지도, 8교구담당)



김동열 목사
(수원관 지도)



윤태곤 목사
(교육연구소 담당)



김장근 목사
(청년부지도)



김익경 목사
(고등부지도)



윤용규 목사
(대학부지도)



김오용 목사
(직전부지도)

 유창무 목사 (북한선교위원회 부지도)	 협동목사 김희보 목사	 협동목사 윤영탁 목사	 협동목사 신성종 목사	 김성윤 강도사 (소년부 지도)
 이두란 전도사 (9교구담당)	 최순복 전도사 (4교구담당)	 구명신 전도사 (새신자부 지도, 6교구담당)	 김경성 전도사 (10교구담당)	 정연희 전도사 (유치부 지도)
 정소영 전도사 (영아부 지도)	 현정남 전도사 (8교구담당)	 정복인 전도사 (5교구담당)	 장영자 전도사 (7교구담당)	 이진희 전도사 (2교구담당)
 유순화 전도사 (3교구담당)	 김연이 전도사 (유년부 지도)	 임태주 전도사 (1교구담당)	 남창우 전도사 (초등부 지도)	 김정자 전도사 (유치부 부지도)
 장혜순 전도사 (직전부 부지도)	 김정순 전도사 (소망부 부지도)	 정국숙 전도사 (새신자부 부지도)	 공로 김연순 전도사	 명예 박현모 전도사

안 수 집 사

 김 정 선 (제직회부회계)	 송 인 홍 (새신자부교사)	 김 동 원	 강 명 순	 임 봉 남 (제직회부회계)	 김 영 진
 김 기 열	 서 동 석	 이 조 영	 김 인 관 (직전부부감)	 박 영 식 (구역권찰회서기)	 최 기 홍
 최 명 환 (재정, 건축위원)	 김 영 생 (자산관리위원)	 안 중 옥	 이 인 상	 최 명 환 (제직회부회계)	 이 중 석 (전도위원로전도부장)
 임 무 천 (중등부부감)	 한 송 규 (제직회부서기)	 손 경 수 (제직회서기)	 정 정 주 (전도위원회간사)	 이 욱 (제직회부서기)	 김 대 호 (제직회부회계)
 이 중 국 (교육위원회간사)	 윤 성 철	 황 의 만 (대학부부감)	 김 동 삼 (제직회부서기)	 이 재 기 (제직회부회계)	 설 관 호 (자산관리위원)

					
홍 주 영 (제직회부회계)	주 원 홍 (제직회부회계)	문 채 인	김 재 명 (소망부부감)	주 열 호 (제직회부회계)	김 과 경
					
김 중 연 (제 6 교구간사)	김 남 조 (제직회부회계)	전 재 룡 (제직회부회계)	임 정 우	전 남 일	이 태 송 (제직회부회계)
					
김 용 석	조 성 행	현 홍 식	이 갑 재 (소망부교사)	양 중 식 (구역권찰회부서기)	최 한
					
전 홍 렬 (4부선임대원)	김 형 선 (제직회부회계)	김 정 태 (새신자부부감)	임 기 채	강 봉 수 (제직회부회계)	원 응 철 (새가정부부감)
					
이 성 원	황 영 일 (제직회부서기)	나 회 주 (세계선교회부서기)	김 성 동	김 상 규 (영아부부감)	노 문 환 (소년부부감)
					
김 환 기 (고등부부감)	김 상 덕 (유지부부감)				

1, 2 월 행사

□ 당회

- 1월 2일 / 85년 12월 정기당회
- 1월 31일 / 1월 정기당회
- 2월 28일 / 2월 정기당회

□ 제직회

- 1월 5일 / 공동의회
- 2월 2일 / 정기제직회

□ 구역권찰회

- 1월 5일 / 교구간사 특별회의
- 1월 14일 ~ 2월 28일 / 노인심방
- 2월 2일 / 모범구역, 구역원표창
- 2월 21일 / 구역일군교육

□ 예배위원회

- 1월 6일 ~ 10일 / 단기수련부흥사경회
- 1월 17일 / 성례식
- 1월 26일 / 제직·권찰 헌신예배

□ 전도위원회

- 1월 6일 / 남·여전도회 임원교육
- 1월 21일 / 주교교역자 및 부장단과의 간담회
- 1월 26일 / 교구교역자·지역장·간사와의 간담회
- 2월 4일 / 군선교전도대 파송예배
- 2월 13일 / 상설노방전도인 훈련
- 2월 22일 / 학원전도 세미나
- 2월 23일 / 남·여전도회 회장단 간담회

□ 북한선교위원회

- 12월 30일 ~ 1월 3일 / 송구영신 축복성회
- 1월 20일 ~ 24일 / 평신도지도자 훈련
- 2월 2~7일 / 충남연합집회
- 2월 24일 ~ 3월 1일 / 3·1절 구국성회

□ 세계선교회

- 1월 26일 / 선교주일행사
- 2월 9일 / 선교특강

□ 교육위원회

- 1월 2일 ~ 10일 / 단기수련회
- 1월 12일 / 주교실무자 협의회
- 1월 19일 / 주교실무자 교육
- 1월 15~24일 / 고등부 계절학교
- 1월 27~30일 / 중등부 계절학교
- 2월 11~12일 / 영아부 계절학교
- 2월 11~13일 / 대학부 계절학교
- 2월 14~16일 / 청년부 계절학교
- 2월 20~22일 / 직전부 계절학교
- 2월 24~26일 / 유치·유년·초등·소년부계절학교
- 2월 25~26일 / 전국영아부지도자 수련회

□ 재정위원회

- 1월 5일 / 공동의회 예산안 상정

□ 사무국

- 2월 2일 / 행정감사

□ 출판국

- 2월 8일 / 월간충현 발행 (1·2월호)

□ 장학회

- 2월 16일 / 장학금 수여

편집후기

☆ 새해들이 첫번째 내보내는 「월간충현」이다.

금년도 교회당 건축으로 인해 건축재정을 할수 밖에 없고, 「월간충현」도 작년

과 마찬가지로 격월제로 발행케 된다.

☆ 이번호에는 새로 임명된 각 위원장들의 새해 포부 및 소감을 특집으로 엮으면서, 86년도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꼭 이루어지길 소원해 본다.

☆ 신년호이기 때문에 각부서의 사업계획, 그리고 각기관의 임직자들을 소개하게 되었으며, 충현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한꺼번에 소개한다.

☆ 신년호부터는 일반 신도들을 위한 신학해설란을 신설하여 평신도 신학향상에 기여토록했고, 질문코너를 새로 마련하여 궁금한 것에대한 질의응답도 마련했다.

많은 이용을 바라며, 독자들의 평상시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월간충현」 편집실에 문을 두드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해보겠다.

☆ 이번호에 미진한 부분은 다음호에 보충해서 내 보내기로 하고 성도여러분의 가정과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해본다.

1986년 1·2월호

제14권 제1호 (통권 제132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6년 2월 5일 인쇄
1986년 2월 8일 발행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조현명
주관 / 이성근
편집장 / 김차생
편집위원 / 김원남
조영길
김장근
이응선
조선근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 ~ 5

사진으로 보는 충현의 이모저모



▲ 지하철 역삼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역장의 손목잡고 기도하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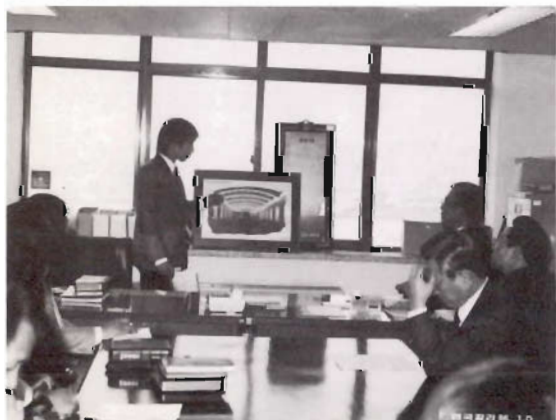
▲ 공로 장로로 은퇴하는 윤종순 장로에게 공로패를 드리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 85년도 전도왕에게 시상하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 86년도 1/4분기 성례식에서 유아세례 베푸시는 김창인 목사님.



▲ 새롭게 구성된 건축위원들이 본당 조감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86년도 단기수련회 (교역자 및 당회원의시간)

사진으로 보는 충현의 이모저모



▲ 85년도 성탄축하예배에서 설교하시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 성탄축하 음악예배 (유·초·소년부가 성가를 부르고 있다.)



▲ 86년도 단기수련회중 부흥사경회 (강사는 정필도 목사님)



▲ 부흥회에 참석한 교우들 (약 2천여명이 매일 참석)



▲ 세계선교회가 주관한 이스라엘 문물전시회



▲ 86년도 성찬식 광경 (1월19일 주일5부)